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ear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12일부터
서머타임 시작
새벽 2→3시로
관련 기사 3편



헌정 사상 최초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안 인용 대통령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압도적 “국론분열 혼란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 주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박근혜 대통령이 10일(한국시간)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8인 평결 결과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10일 11시부터 20여분에 걸친 헌재 탄핵심판 결정문 낭독을 통해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 집행을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보고 국회가 요청한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다. 이로써 첫 여성 대통령으로 기대를 모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헌정사상 첫 탄핵이란 불명예로 끝나게 됐다. 이정미 소장대행은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

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주문 피청구인 박근혜를 만장일치로 파면한다.” 고 밝혔다. 이 소장 대행은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책임 기간 전체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 이런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위배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소장 대행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 ▶▶2면으로 계속

공화당 의료개혁안 매사추세츠에는 어떤 영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사백 기자 = 미 의회가 8일 공화당 건강개혁안에 대한 법안 심사에 돌입해 9일 새벽 예산결산위에서는 공화당안을 승인했다. 에너지위원회에서는 아직도 법안을 심사중이다. 하원의 경우 민주당의원 수가 소수여서 공화당안의 통과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안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매사추세츠는 지난 2006년 미국내 최초로 전 주민건강보험안을 제정해 시작했던 곳으로 오바마케어의 모태 역할을 했었다. 이에 따라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오바마케어의 핵심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겠노라고 공언해왔다. 연방의회가 공화당안을 얼마나 수정해서 통과시킬지는 몰라도 뉴잉글랜드 다른 주와 달리 매사추세츠 주에서만만큼 이와 다를 것이라는 것이 보스톤글로브의 지적이다. (관련기사 7, 8, 9, 44면) ▶▶7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만행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a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보스톤 출발
한국행항공권 \$899~

한국방문길에 걸리는
도쿄여행 패키지

항공권 47주년

한국행 항공권 포함가! (항공료 제외)
도쿄 시내 호텔 2박, 왕복 공항여객기, 도쿄입장권
포함하는 당일투어도 게스트하우스 가보!

\$1,890~

IACE TRAVEL
문의전화
1.617.424.8956
1.866.619.4223



Dr. 닥터스통증병원

“통증” 참지 마세요
해답은
닥터스통증병원에서

617.731.1001
617.566.1199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Century 21

주최 | 지도 | 마케팅
성실한 고객서비스
Eileen Park
REALTOR

Tel: 617.935.3241
WWW.BOSTONPREMIERREALTY.COM

재외국민 대선 유권자 등록 3월 31일까지

박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5월 9일 조기 대선 유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제19대 조기 대통령선거국면에 들어갔다. 재외국민들도 국회의 법률 개정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3월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의 권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적용하도록 한 부칙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통과돼 재외국민들의 선거 참여에 대한 길을 열었다.

헌법재판소가 3월 11일 탄핵안을 인용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가 되는 5월 10일 전후에 치러져야 한다. 5월 초 징검다리 휴일이 많은 주일을 피해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되는 경우 국외부재자(유학생 등 단기 체류자) 신고와 재외선거인(영주권자) 등록은 3월 11일부터 중앙선거위 홈페이지나 각 지역 공관에서 선거일 전 40일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유권자등록은 3월 31일까지 단 20일 동안만 실시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도'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재외국민

을 대상으로 재외투표 참여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제도로, 직전 선거의 재외선거인으로 등록된 선거인은 새롭게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외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서 삭제된다.

3월 2일 본회의에서 여야는 재석 207인(재적299) 중 찬성 180명, 반대 12명, 기권 15명으로 해당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부칙 삭제뿐만 아니라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재판소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외부재자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권위시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과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공직선거법 제218조 12)로 변경되며,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않는다.

hsb@bostonkorea.com

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 전원일치 인용

최순실 위해 대통령 지위와 권한 남용 헌법 수호의지 드러나지 않아 중대한 위헌, 위배행위

탄핵인용

8 : 0
인용 : 기각

조용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주심)	김창중 재판관	김어수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소장권대행)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인용	인용	인용	인용	인용	인용	인용	인용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조사 등 갈 길 험난

▶▶ 1면에 이어서

도록 하여야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렸지만 공무원 임명권 남용, 세계일보 사장 퇴임 등 언론탄압에 관해서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으며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의 무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없다. 정치적 무능력 소추 사유될 수 없다."고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정미 소장대행은 탄핵결정문 낭독 서두에는 그동안 대통령 대리인들이 지적했던 것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흠결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대행은 "90일동안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60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 진행했으며 재판관 주심 임의로 진행한 적 없다.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파면 당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하게 되며 향후 피의자로서 검찰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에게는 연금, 비서관, 운전기사 등 모든 예우가 박탈되지만, 경호·경비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경호 기간이 최장 10년으로, 정상적으로 임기를 끝낸 대통령의 최장 15년보다 짧다.


editor@bostonkorea.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시민협회 정치 인턴 모금 만찬 4월 8일 개최

기조연사 세라 김 매사추세츠 재무부 수석변호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뉴잉글랜드 한인 미국시민협회(KACLI)는 오는 4월 8일 토요일 오후 6시 렉싱턴에 위치한 엘크스 클럽(Elks Club)에서 차세대 정치 인턴 지원을 위한 장학금 모금 만찬을 개최한다.

올해 정치인턴 만찬에서는 세라 김 매사추세츠 재무부 수석변호사(General Counsel)가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90년 창립한 시민협회는 98년부터 정치인턴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총 80여명의 정치인턴 장학생을 배출했다. 이들 인턴들은 여름방학동안 연방상

원의원, 매사추세츠 주지사, 하원의원 등의 사무실에서 인턴으로서 근무했다.

시민협회는 정치인턴 기금모금만찬을 통해 모은 기금으로 선발된 인턴들에게 대학생 \$2000, 고교생 \$500의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올해로 19회를 맞는 시민협회 정치인턴장학생 모금 만찬의 참가비는 일반인이 \$60이며 학생 및 시니어의 경우는 \$30이다. 이 행사에 대한 문의는 이경해 회장 (508-962-2689), 혹은 김성균 이사장 (617-799-7033)에게 할 수 있다.

이경해 시민협회 회장은 “우리 한



세라 김 변호사

세라 김 변호사는 현재 매사추세츠 재무부 산하 모든 관청과 연관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수석변호사이자 매사추세츠 세입징수관(Receiver General)이다. 재무부 장관은 덴 골드버그, 재무부 근무 바로 전에는 매사추세츠주 법무부 재무관련 범죄 사기방지부서 검찰총장보로 근무했다. 정관계 근무 이전에 김 변호사는 10년간 보스톤 소재 '빙햄 메커진' 합동 법률 사무소에서 증권과 증권범죄 단속관련 그리고 브로커-딜러 대변 변호사로 일했다. ATASK 이사로 오래 근무했고 아시아변호사협회장을 맡기도 했다. 자원봉사단체에서 자원봉사하고 있다. 다크머스를 졸업하고 빌라 노바로스쿨을 졸업했다.

인의 권익확보와 정치력 신장을 위해 미래를 밝힐 젊은정치인턴 사업 후원에 성원을 보여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 말했다.

일시: 토요일, 4/9/16, 6시

장소: Lexington Elks Club, 959 Waltham St, Lexington, MA, 781-862-9759

hsb@bostonkorea.com

3월 12일부터 서머타임 시작 새벽 2→3시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올해 서머타임 (Daylight saving time)이 3월 둘째 주 일요일인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새벽 2시는 새벽 3시로 1시간 빠르게 조정된다. 토요일 밤 잠들기 전에 시계를 한시간 앞으로 돌려놓고 자는 것이 좋다. 시간을 앞으로 돌려야 할지 뒤로 돌려야 할지 혼동이 되면 ‘Spring forward Fall back’으로 기억하면 쉽다.

서머타임 기간에는 보스톤을 비롯한 미동부 지역의 한국과의 시차가 현재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1시간 줄어든다. 가장 좋은 점은 일몰이 지금보다 한 시간 늘어나 야외활동 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여유를 1시간 정도 더 갖게 된다.

올해 서머타임은 11월 첫 번째 일요일인 11월5일 새벽 2시에 종료된다. 서머타임을 시행하지 않는 애리조나와 하와이 등은 이번 시간 조정에서 제외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2016년 시민협회 정치 인턴 모금 만찬 모습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영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김시훈 Sihun Kim
정성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락 Andrew Koak
앤젤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미션협 |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SAT Plus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PRING SCHEDULE 2017

Class	Time
SAT II MATH IIC Prep	Saturday 9:00AM-11:00AM 3/25/17-5/27/17
AP/SAT II Biology Prep	Saturday 11:30AM-1:30PM 3/18/17- 5/27/17
AP/SAT II Chemistry Prep	Saturday 3:00PM-5:00PM 3/18/17-5/27/17
SAT II MATH IC Prep	Saturday 6:00PM-7:30PM 3/25/17-5/27/17

SAT Plus SUMMER SCHEDULE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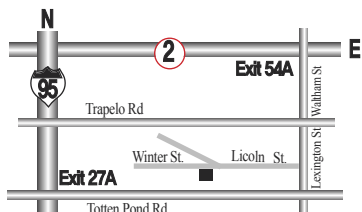
JULY 10 - JULY 28

Class	Time
SAT I Prep	8AM -12PM Mon, Tue, Wed, Thu, Friday
Biology preview	1:00PM-3:00PM Monday, Wednesday, Friday
Chemistry preview	4:00PM-6:00PM Monday, Wednesday, Friday

AUGUST 7 - AUGUST 25

Class	Time
SAT I Prep	8AM -12PM Mon, Tue, Wed, Thu, Friday
SAT I Prep	1:00PM-5:00PM Mon, Tue, Wed, Thu, Fri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판 프로젝트 콘서트, 동아시아 음악의 새로운 조합

문화와 시대의 경계를 뛰어넘은 자유로움과 창의성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이상원 객원기자 = 한국-중국-일본의 전통 악기를 다루는 5명의 연주자로 구성된 판 프로젝트 앙상블(PAN project ensemble)의 콘서트가 지난 3월 4일(토) 브랜다이스 대학교의 슬로스버그 뮤직 센터에서 열렸다.

한국의 가민(피리, 생황, 태평소), 심운정(장구, 북), 일본의 카오루 와타나베(시노부에, 노칸, 타이코), 중국의 임치에 왕(얼후)과 미국의 제프 로버츠(중국 구친, 전자음악)로 구성된 이 그룹은 브랜다이스 대학교 문화교류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초청으로 일주일 동안 보스톤에 머물며 강의 및 연주 활동을 펼쳤고 마지막 날에는 콘서트를 통해 일반 청중을 만났다.

연주곡은 각 나라의 전통적인 선율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합주곡 다수와 카오루 와타나베의 창작곡들, 그리고 제프 로버츠가 만든 멀티미디어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각 나라 악기의 독특한 음색이 어우러져 흔히 볼 수 없는 특별한 화음을 이루어 냈다.

임치에 왕의 얼후 연주는 놀라운 표현력으로 듣는 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카오루 와타나베는 여러 가지 관악기와 타악기, 그리고 목소리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어 나갔다.

가민은 화음이 가능한 관악기인 생황, 크기

는 작으나 굽직한 음색으로 힘 있게 마음을 움직이는 피리, 압도적인 존재감의 태평소로 합주의 주축을 담당했으며, 심운정은 장구, 북, 징을 통해 안정적이고 견고하게 다양한 선율과 분위기를 받쳐주고, 리듬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며 좋은 앙상블을 만들어 냈다. 제프 로버츠는 중국 악기인 구친을 연주하고 연주 전 강의와 설명으로 청중의 이해를 높였다.

엄성준 총영사를 비롯한 약 150명의 청중들은 이들의 연주에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냈으며 연주 후에는 한중일 3개국의 음식으로 준비된 리셉션을 즐기며 연주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청중들은 “각 나라의 오래된 선율과 악기가 만나 새로운 작품과 사운드가 된 것, 그리고 새로운 시대와 장소에서 이 음악들이 연주되고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 낸 것이 의미있다” 고 이야기 했고 “판 프로젝트 그룹이 보여준 창의성과 즉흥성, 자유로움이 인상적” 이라고 평했다.

이 행사는 브랜다이스 대학교의 MusicUnitesUs 프로그램이 주최하고 브랜다이스 음악대학과 예술 위원회(Arts Council) 및 보스톤 한미예술협회가 후원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한국-중국-일본의 전통 악기를 다루는 5명의 연주자로 구성된 판 프로젝트 앙상블(PAN project ensemble)의 콘서트가 지난 3월 4일(토) 브랜다이스 대학교의 슬로스버그 뮤직 센터에서 열렸다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제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FREE GIFT
홍삼정 30g
천녹삼 30g
무료선물

\$420 (180g X 2병) \$70 상당 선물

청정 뉴질랜드 녹용과 정관장 6년근 홍삼의 만남

용솟음치는 활력과 건강, 녹용으로 누리세요.

**하루 2번,
건강을 지키는 습관**

✓기력회복 ✓항암효과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증진
✓간 및 신장 기능 개선 ✓당뇨 합병증 예방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증정

전화주문 서비스
모 주문후 다음날 관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주목받는 피아니스트 찰리 박 올브라이트 독주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이상원 객원기자 = “그의 세대에서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음악가”, “화려하고도 자연스러운 키보드 위의 움직임” (워싱턴 포스트), “입을 벌이지게 하는 테크닉과 기교, 탁월한 음악성의 결합” (뉴욕 타임즈)이라는 미국 주요 언론의 큰 호평을 받으며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찰리 박 올브라이트(29)의 독주회가 3월 26일(일) 오후 4시에 론지 음악대학의 피크먼 콘서트홀(27 Garden St. Cambridge, MA)에서 열린다.



피아니스트 찰리 박 올브라이트(29)의 독주회가 3월 26일(일) 오후 4시에 론지 음악대학의 피크먼 콘서트홀(27 Garden St. Cambridge, MA)에서 열린다

1992년에 워싱턴 주 센트럴리아에서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그는 3세에 피아노 레슨을 시작하였고, 고등학교 재학 중에 센트럴리아 컬리지에서 과학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와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의 5년제 학사/석사 통합 과정에 클래식 피아노 전공 학생으로는 최초로 합격하여 2011년에 하버드 대학교 의예과(Pre-Med)를 졸업했으며, 2012년에는 변화경 교수의 지도하에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에서 피아노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4년에는 줄리어드 음대에서 아티스트 디플로마 과정을 졸업하였다.

에이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2014), 독일의 루르 클라비어 페스티벌 영 아티스트 어워드(2014), 영 콘서트 아티스트 인터내셔널 오디션(2009) 등에서 수상하여 인정을 받은 박은 찰리 올브라이트는 2015-16 시즌에는 뉴욕 링컨 센터의 모스틀리 모차르트 페스티벌 데뷔, 중국 베이징의 내셔널 퍼포밍 아트센터 연주,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과의 휴스턴 심포니 협연 등의 연주회를 가졌다. 2016-17 시즌에는 볼티모어, 콜로라도 스프링스, 모빌 심포니와의 데뷔, 보스톤 팝스 오케스트라 협연, 이자벨라 스투어트 가드너 뮤지엄

에서의 Themes and variation (주제와 변주) 시리즈 연주로 큰 호평을 받았다. 이번 독주회에서 그는 쇼팽의 발라드와 에튀드, 카푸스틴의 변주곡 등을 연주할 예정이며, 관객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 자리에서 음악을 만드는 즉흥 연주도 들려줄 예정이다. 입장료는 일반 \$25, 학생 \$10이며 보스톤 한미예술협회의 웹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다. (www.kcsboston.org, 전화 문의: 781-223-4411)

bostonkorean@hotmail.com

화음보스톤챔버 5주년 기념 봄 음악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창단 5년째를 맞는 화음보스톤챔버 오케스트라 5주년 기념 봄음악회가 3월 18일 토요일 저녁 7시30분 메드포드 소재 텡스대 그레노프뮤직센터에서 개최된다.

‘브람스의 밤’이란 주제로 열리는 봄음악회에서는 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린 첼로 협주곡인 Double Concerto와 브람스의 마지막 심포니인 Symphony No.4를 공연한다. 바이올린은 김현정, 첼로는 권현지 씨가 협연한다. 티켓은 일반 \$30이며, 학생 및 시니어는 \$10이다. 당일 6시30분 부터 그라노프 뮤직센터에서 구입 가능하다.

2013년 창단공연을 시작으로 한미사회에서 활발한 음악활동을 펼쳐온 화음보스톤챔버 오케스트라는 자선음악회와 매년 봄, 가을 정기

연주회, 한반도시리시콘서트 등을 통해 클래식음악을 선보여왔다.

장수인 화음보스톤챔버오케스트라 단장은 “그동안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수많은 의미있는 감동의 음악으로 멋진 성장을 해온 화음보스톤오케스트라의 5주년음악회에 많은 성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는 장수인 단장(978-821-9434)에게 할 수 있다.

브람스 Night 의 프로그램
 일시: 3월 18일 (토) 7:30 pm
 장소: Granoff Music Center, Tufts University
 20 Talbot Ave, Medford MA
 티켓: General : \$30
 Senior/student : \$10
 문의: 978-821-9434
 sooihnee@comcast.net
 bostonkorean@hotmail.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Bruxir Crown
- 미용 치과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보스톤 한미 노인회 효도잔치 가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노인회는 3월 1일 수요일 노스 앤도버 소재 다문화 선교교회에서 효도잔치를 개최했다.

가든하우스 식당과 충정향우회 후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열리는 이번 효도잔치에는 80명의 많은 노인들과 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김용진 이사장은 2017년 전반적인 활동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노인회의 다음 사랑방 모임은 3월 15일 다문화 선교교회에서 10시부터 진행된다. 사랑방 모임중에 요가, 탁구,



다문화 선교교회에서 개최한 효도잔치에서 점심식사전 요가 클래스를 하고 있는 모습

서예, 난타, 장구, 부채춤, 컴퓨터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994-5490, 윤철호부회장: 978-902-8305로 하면 된다. 더 자세한 문의는 유영심회장: 978-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중앙대학교동창회 제21차 정기총회가 지난 3월5일 렉싱턴의 불판레스토랑에서 개최됐다

중앙대 동창회 정기총회 이기환 회장 재선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중앙대학교동창회 제 21차 정기총회가 지난 3월5일 렉싱턴의 불판레스토랑에서 개최됐다.

조재석총무의 사회로 열린 총회에서 지난해 8월 LA에서 열린 북미 주총회, 김배규(피아노과 96)동문의 7월 뉴욕카네기홀에서의 피아노 연주회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신입회원으로 최에스터(행정대학원)동문이 소개되었다.

2년마다 열리는 회장단 선출에서는 이기환 회장(광산공학과65)이 재

선출되었으며 차기회장겸 부회장으로 김옥식(심리학과77)동문, 총무엔 조재석(산업디자인 91)동문이 선출되었다

동문들은 2018년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참여방법과 학생회원과 신규회원의 적극 참여방법을 논의하였다. 7월 모임은 김섭(사회사업 62) 자문위원의 Scituate 해안 별장에서 갖기로 결정했다. 연락처 회장 이기환(781-572-8044), 부회장 김옥식(508-254-8228)

bostonkorean@hotmail.com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제 98주년 3.1절 기념 행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는 제 98주년 3.1절 기념식을 지난 3월 5일 생명의 길 교회에서 개최했다.

사무총장 모니카 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는 정유민 학생간사, 생명의길 교회 정현경씨의 독립 기념 문 낭독이 이어졌다. 특히 독립 기념문

을 낭독한 정현경씨는 독립유공자 일천 정수기 선생님의 손녀딸이다.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3.1절 행사에 참여한 엄성준 보스톤 총영사는 지난 2월 23일 뉴햄프셔의 포츠머스 시를 방문, 문화를 통한 외교 등을 강조했다.

우영주 목사는 “3.1운동 정신의 계승과 이민 사회의 역할”이란 특별 강

연을 통해 3.1운동 당시의 활동 상황과 이민자와 종교인들의 참여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서 옥동석 노인회 회장의 선창으로 모두가 만세삼창을 외쳤다.

bostonkorean@hotmail.com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는 제 98주년 3.1절 기념식을 지난 3월 5일 생명의 길 교회에서 개최했다

보스톤 산악회 18일 정기산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산악회는 3월 18일 토요일 뉴햄프셔 알바니 소재 초코루아 마운틴(Mt. Chocorua, 4312ft)으로 정기산행을 나간다.

이번 산행은 Chamney Falls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데 왕복 산행 거리는 7.6 마일이며 산행시간은 약 5시간이다. 난이도는 3.5로 보통이다.

겨울산행이니만큼 준비물은 트레킹 폴스, 아이젠(Microspikes 또는 Crampons)이 필수이다. 이외에도 배낭, 등산화착용, 방한복, 방풍의, 장갑, 털모자, 고글, 스틱, 식수,

간편한 중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집결지는 울스틴 공영주차장(오전 6시 30분)과 Park&Ride Exit2 of RT93(오전 7시 15분)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산행당일 회비 \$20을 지참해야 한다. 산행신청 마감날은 오는 3월 16일 목요일 오후 6시다.

산행신청을 원하는 한인들은 A,B,C중 원하시는 조와, 집결지 선택(Allston or Exit 2) 차량운행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 연락 전화를 남겨야 한다. 문의는 978-569-3256(김상호)로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공화당 개혁안의 최대 수혜자와 피해자



공화당 어메리칸헬스케어액트 수혜자는 젊은층과 부유층
최대 피해자는 저소득층, 노인층, 장애인 등 사회 약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오바마케어 철폐를 입으로만 외치던 공화당 하원이 드디어 새로운 건강보험개혁안을 들고 나왔다. 이번 법안은 앞으로도 법안심사를 거치면서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겠지만 누구에게 가장 수혜가 돌아가고 피해가 주어질지 쉽게 파악된다.

American Health Care Act라고 이름붙인 법안은 오바마케어의 근간인 가입의무화 조항 폐지, 저소득층 메디케어확대적용 폐지, 부유층, 보험사, 제약사 등에 적용됐던 세금 폐지가 골자다. 메디케이드 확대부분만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메디케이드 연방보조 방식도 매칭 방식에서 고정금액 지급방식으로 바뀐다.

공화당 법안의 가장 분명한 약점은 오바마케어 이전처럼 수백만명을 무보험자로 만들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점에 대해 답하는 것을 피하고 있지만 의회예산국은 이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카이저 재단을 인용해 CNN은 “메디케이드의 감축과 적은 세금 크레딧은 적은 가입자를 초래할 것이다. 공화당이 건강보험 재정을 줄이고자 하므로 무보험자들의 양산은 불가피하다” 고 지적했다.

개인 보험시장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린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많은 무보험자가 양산되는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공화당안이 보험시

장과 보험료를 안정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공화당안이 보험사에게 좀 더 많은 융통성을 부여하며 젊은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혜택을 늘릴 것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덕 베저 갤런 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오바마케어를 지금 상태로 두면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갤런 연구소는 자유시장 건강보험 싱크탱크다.

CNN이 밝힌 피해자와 수혜자를 알아보자.

최대 피해자들

저소득층: 저소득층은 무보험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케어는 빈곤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조항이 많았다. 오바마케어 확대안은 개인 연소득 \$16400까지 가입이 허용되도록 해서 31개주의 1천1백만명이 메디케이드에 가입 가능했다.

이와 더불어 약 \$30,000이하 소득자의 경우 개인 보험시장에서 낮은 보험료와 디덕터블 및 개인부담 비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보조금을 받았다.

공화당안(AHCA)은 2020 메디케이드 신규가입자에 확대적용안을 폐지한다. 이와 더불어 주정부에 고정 보조금액을 지급한다. 이는 부담을 주정부에 넘기게 되며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주정부들은 결국 자격조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커버혜택을 줄이거나 병원 급여를 줄이게 된다.

이는 빈곤층 성인일 비롯해 저소득층 어린이, 여성, 노인 그리고 장애인

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디덕터블 코페이먼트를 줄이는 보조금도 줄이므로 보조금은 훨씬 적어지게 된다.

연소득 \$20,000의 개인은 연령층에 상관없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 카이저 재단에 따르면 27세의 젊은이의 경우 오바마케어에서는 \$3225의 세금크레딧을 받는 대신 AHCA에서는 \$2,000만 받는다. 40세의 경우 오바마케어에서 받는 \$4,150의 세금크레딧 대신 \$3,000만 보조받게 된다.

그러나 최대 피해자는 60세이다. 60세는 현행 오바마케어에서는 무려 \$9,900을 받지만 공화당안에서는 겨우 \$4,000을 받는다.

더구나 나이든 미국인들은 과거보다 보험료가 훨씬 비싸진다. 50대와 60대 가입자는 오바마케어 하에서는 젊은 가입자의 최대 3배만 보험료를 부과토록 했으나 공화당안에서는 최대 5배까지 부과 가능하다.

AARP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밀리만 액처리얼사에 따르면 결국 60세에서 64세의 미국인들의 경우 연 보험료가 22% 정도 인상될 것이며 수치로는 \$3200이 올라 최대 연 \$18,000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4천불의 세금크레딧을 제해도 무려 \$14,000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50대도 무료 13% 즉 \$1500이 인상되어 연 보험료는 \$12800에 달하게 된다.

카이저 재단에 따르면 60세의 가입자가 연 소득이 \$40,000인 경우 오바마케어 하에서는 평균 \$6570을 받지만 공화당안에서는 \$4,000만 받는다.

기존 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물론 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번 안은 오바마케어의 기존 질환자 거부불가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공화당안은 보험사로 하여금 치료비용의 일부를 부담케 하는 조항은 삭제했다. 따라서 보험사는 좀더 높은 디덕터블과 코페이먼트를 담은 보험안을 팔게 될 예정이다. 따라서 기존 질환자는 저렴하고 커버리지가 좋은 보험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다.

최대 수혜자는 누구?

젊은이들은 보다 저렴한 건강보험을 갖게 된다. 오바마케어는 젊은이들이 노인들의 비용을 일부 보조토록 만들었으나 공화당안에서는 노인들에게 더 많이 부과토록 허용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보험은 저렴해질 수 있다.

밀리만 연구에 따르면 20-29세의 젊은이들은 약 \$700을 절약해 연 평균 4,000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들 젊은이들은 연봉이 연 \$215,000을 넘지 않는 이상 \$2000의 세금 크레딧까지 받게 된다.

카이저 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공화당 법안은 젊은이들의 경우 오바마케어보다 관대하다. 예를 들면 40,000수입을 올리는 27세의 경우 \$2,000의 보조를 받지만 오바마케어 하에서는 단지 \$103의 보조만 받는다.

건강한 젊은이들은 저렴한 건강보험을 구입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케어하에서는 30세 이하와 일부만 국

히 저렴한 보험료이지만 고액의 디덕터블(\$7150)을 보유한 재단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의 가입자는 보험료에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나 공화당안은 세금 크레딧을 보험료로 사용해도 무방하도록 했다.

고소득 미국인들은 세금 부담이 적어지고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이 법안은 오바마케어가 부과했던 2가지 세금을 폐지했다. 세금정책 연구센터는 연 \$774,000의 소득을 올리는 상위1%는 평균 \$33,000에 달하는 세금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최고 0.1%는 연 평균 \$197,000의 세금을 감면 받는다.

이법 법안은 더 많은 돈을 세금면제되는 건강세이빙계좌에 돈을 부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부유층들은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오바마케어에서는 연소득 \$47,500 이상인 경우 세금 크레딧을 주지 않았지만 공화당 안에서는 최대 \$75,000 소득자까지는 세금 크레딧 전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 소득이 연 \$215,000이 되면 크레딧이 주어지지 않는다.

보험사들도 커다란 세금혜택을 받게 된다. 오바마케어는 보험사의 임원진 연봉을 \$500,000까지만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했지만 공화당안은 그 제한을 삭제했다. 임원진 연봉을 얼마든지 올려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editor@bostonkorea.com

**광어,우럭
사시미에
한잔 생각하시면
오빠 스시로
오세요**

185 Harvard Ave. Allston
617 202 3808

BLESSING CHANNELS
네일 아카데미
BCNAILSCHOOL.COM

지금! 자격증에 도전하세요

MA Best Nail School
www.bcnailschool.com

78 Millis Ave #103, Millis, MA 01901
781.729.8868

현금 대출

- 비즈니스 오너를 위한 현금대출
- 은행 잔고 증명 불필요
- 신용조회 불필요
- 24시간내 승인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전화하세요!
617.834.8183

공화 건강보험, 고소득층엔 부담 덜고 저소득층엔 더 부과

알고보니 불합리한 '오바마케어 라이트' 공화 오바마케어 대체 건강보험안 법안심사 개인 강제가입 규정 폐지, 매사추세츠는 유지



플라이언 하원의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6일 건강보험안을 공개하고 오바마케어라 불리는 어포터블케어법안(ACA)을 대체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법안의 통과가 확실해 지는 경우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한인들에게는 직간접적인 재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하원 공화당법안이 본격적인 의회 토론에 들어가면서 50여년만에 가장 획기적인 전국민 건강보험안이었던 오바마케어는 어떤 형식으로든 공화당 입맛에 맞도록 좀더 자유시장 지향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오바마케어의 변동은 미 경제의 상당부분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밝혔다.

공화당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미국내 31개 주 1천만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었던 메디케이드 확대 제공을 원상대로 돌리게 된다. 또한 그동안 보수층으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왔던 건강보험가입의무화 조항도 폐지하게 된다. 또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했던 대형 사업체의 의무조항도 폐지된다. 그러나 보험가입을 포기한 사

람이 다시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30%의 보험료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

공화당안은 오바마케어에서 핵심적인 3가지 조항은 그대로 유지한다. 기존 질병환자들의 보험가입 거부 금지, 개인 평생동안 보험 보상금액에 대한 상한 설정 폐지, 26세까지 부모의 건강보험 안 편입 가능성이 그것이다.

이번 공화당 안의 핵심은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 보조혜택의 축소와 고소득층과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칙의 폐지다. 메디케이드 확대적용 폐지에 이은 소득 대비 세금 크레딧 보조금 지급 제도의 철폐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소득에 상관없이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게 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렵게 된다.

공화당 안에 따르면 30세 이하의 가입자들은 일괄적으로 연당 \$2000을 세금크레딧으로 지급하며, 60세 이상의 가입자들에게는 최대 연당 \$4000의 세금 크레딧을 제공한다. 단 개인당 연소득이 \$75000 이상, 부부합산 소득이 \$150,000이상인 경우 세금 크레딧이 더 적게 지급된다.

민주당은 세금 크레딧이 이 정도만 제공할 경우 수많은 저소득층은 보험 가입을 탈퇴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화당 법안은 지금껏 주정부의 연방 메디케이드 보조금을 저소득층 건강보험 금액에 대해 50%로 지급했던 것을 바꿔 개인당 고정된 금액으로 변환 지급하게 된다.

현재 7천만명의 저소득층이 가입되어 있는 연방 및 주정부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연방보조금을 각주에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함으로써 주정부는 과거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의 연방 보조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다.

공화당 지도부는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건강보험 회사가 훨씬 간단하고 저렴한 보험수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 세금 크레딧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오바마케어는 (비용이 계속 부풀어 거) 침몰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케빈 맥카시 하원 원내대표의 지적이다. "이번 공화당 하원안으로 과거의 실수로 인해 보험을 잃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저소득층에 대해 무한정 들어갔던 연방 메디케이드 보조금을 삭감해 비

용을 절감할 것이라는 공화당 지도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부담은 삭감해줄 것이라는 방침이다. 오바마케어는 늘어가는 비용을 감당키 위해 고비용 직장의료보험(개인당 연\$10,200, 가족당\$27,500 이상)에 가입한 고소득 근로자들에게 40%의 물품세를 부과했다. 소위 "캐딜락 세금"이라 불리는 이 안은 고용주와 노조 모두 싫어해 2020년까지 유예 했었다. 이번 공화당 하원안은 이 안을 2020년에서 2024년으로 연기시켰다

하원 예결위와 상무자원부에서 3월 8일부터 법안 심사가 시작된다. 공화당은 위원회가 이번 주말까지는 신규건강보험안을 승인하고 4월 7일 시작되는 봄 휴식기 전에 전체회의에 부쳐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상원에서 통과전망은 불분명하다. 민주당 상원은 오바마케어의 유지를 원하고 있으며 일부 공화당 상원들조차 이번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법안 발의자들은 자신들이 제안한 신규 건강보험안이 얼마정도의 예산이 소요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잃거나 가입하게 될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두곳의 하원 소위들은 의회예산국의 비용

추산 없이 보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6일 록 포트만(오하이오), 셸리 무어(웨스트 버지니아),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리사 멀코우스키(알래스카) 공화당 연방상원의원 4명은 하원의 건강보험안이 해당 주의 주민들의 건강보험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대 서한에 서명했다.

이외에도 마이크 리(유타), 랜드 폴(캔터키), 테드 크루즈(텍사스) 등의 연방 상원의원들도 하원 보험안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중이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들은 하원내 강경 보수 성향의 반대와 염려를 무마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강경보수 하원인 저스틴 아메시(미시간)는 6일 트위터를 통해 이번 하원 보험안이 "오바마케어 2.0"이라고 비난했다.

공화당 하원 내 보수성향모임인 '자유 코커스'의 의장 마크 매도우스(노스 캐롤라이나)는 론 폴 의원과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해 오바마케어의 "완전한 철폐"를 추구하고 있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금의 하원안도 거대 정부 프로그램으로 보고 있다.

"보수층은 새로운 세금이나 제도 그리고 '오바마케어 라이트' 법안을 원치 않는다"고 그들은 밝혔다. "만약 지도부가 현재의 오바마케어를 오바마케어 라이트 법안으로 대체한다면 결코 통과를 자신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원 법안에서 플랜드 페런후드의 지원금을 철폐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인상을 선화하는 조항은 중도나 민주당원들의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hsb@bostonkorea.com

오늘 반찬

Today Banchan

메뉴

매주 수, 토 1회 \$100

짜장: 32oz 2통
짬뽕: 32oz 2통
돈까스+양배추샐러드: 24oz
오징어채 볶음: 16 oz
소고기 달걀 장조림: 16oz
가지나물: 16oz
깍두기: 16oz

(알려져 있지 않은 분은 미리 알려주세요)

100% 보장

신선한 재료
NO MSG
배달 당일 제작
(김치, 젓갈 등 저장음식 제외)

주문

배달 전일 저녁 5시까지 주문 접수
배송은 수, 토요일 밤 6-9시 사이.
이메일: todaybanchan@gmail.com



TEL: 857.998.9172
Kakao: todaybanchan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롬압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쓰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9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고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웨스트보로, MA주 첫 마리화나 금지 타운

유흥용 마리화나 관련된 비즈니스 전면 금지 타운 자체 주민투표 결과 1,192 대 294로 통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웨스트보로 주민들이 마리화나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매사추세츠 주 다른 곳에서는 마리화나 판매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웨스트보로에서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웨스트보로는 매사추세츠 주에서 처음으로 마리화나 판매를 금지하는 타운이 되었다. 웨스트보로에서는 지난 7일, 유흥 목적의 마리화나 판매점, 재배 농장, 혹은 마리화나와 관련된 어떤 비즈니스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주민투표안을 1,192 대 294표로 통과시켰다.

웨스트보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주민투표를 마친 후 인터뷰에서 매리언 피셔는 “난 처음부터 마리화나 찬성에 투표하지 않았다. 나는 매사추세츠 주에서 마리화나를 원하지 않고, 이 타운에서 마리화나를 원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유흥 목적의 마리화나를 허용하는 법안이 작년 11월 매사추세츠 주민투표를 통해서 통과되었지만, 각 타운이나 도시 별로 마리화나를 규제하는

법안을 따로 제정할 수 있다.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마리화나 판매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판매 라이선스의 숫자를 제한할 수도 있고, 마리화나 판매에 부과되는 세금을 더 높게 책정할 수도 있다. 웨스트보로는 유흥용 마리화나 비즈니스가 들어오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차단한 것이다.

작년 매사추세츠 주민투표 당시 마리화나를 찬성하는 투표자의 비율은 약 54%로 과반수를 넘었다. 그러나 당시에도 웨스트보로에서는 오히려

마리화나에 반대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마리화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리화나 판매점이 들어서게 되면 마약을 더욱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고, 마약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어린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마리화나가 들어갈 위험도 높다고 말한다.

웨스트보로 주민들 중 일부는 마리화나 금지 법안이 주민투표로 통과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들은 마리화나 판매에 따른 세금 수입이 사라졌고, 마리화나 판매점이 주류 판매점이나 담배를 파는 가게보다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jsi@bostonkorea.com



웨스트보로에는 마리화나 판매점이 들어설 수 없게 되었다

1. Wayland	11. Rockport
2. Groveland	12. Carlisle
3. Norfolk	13. Bedford
4. Clinton	14. Duxbury
5. Franklin	15. Dighton
6. Sudbury	16. Boxborough
7. Georgetown	17. Holden
8. Norton	18. Lincoln
9. Holliston	19. Reading
10. Harvard	20. Lexington

매사추세츠 주에서 가장 안전한 타운 TOP 20

MA주에서 가장 안전한 타운은 웨이랜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에서 가장 안전한 타운은 웨이랜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가정 안전 및 보안 협회는 FBI의 범죄 기록과 각 타운의 인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사추세츠 주에서 가장 안전한 타운 순위를 발표하였다.

웨이랜드의 뒤를 이어 그로브랜드, 노포크, 클린턴, 프랭클린 등이 가장 안전한 타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인구가 5,000명 이상인 타운과 도시만을 대상으로 순위를 정했다.

웨이랜드는 작년에 단 1건의 강

력 범죄만이 보고되었으며, 5건의 재산 범죄가 보고되었다. 인구가 13,679명인 웨이랜드는 1,000명당 0.07건의 강력 범죄가 발생했으며, 재산 범죄는 0.37건이다.

매사추세츠 주의 평균 범죄 발생율은 강력 범죄가 1,000명당 2건, 재산 범죄가 1,000명당 13건이었다. 미국 전체 평균은 강력 범죄가 1,000명당 3건, 재산 범죄가 1,000명당 38건이다.

보고서는 웨이랜드가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타운 주민들을 위한 교육과 문화 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jsi@bostonkorea.com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더 나은 봄, 서울설렁탕의 미션, 특별 보양, 두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oul in Boston
158 Cambridge St, Boston
617.572.8888
SeoulFoxBar.com



마이클 리 모기지



부동산 판매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한국어 상담

Pre-Qualification 당일 서비스



Michael Lee, Loan Officer
mike.lee@norcom-usa.com

전문 분야

융상 대출
정부대출: FHA, VA, USDA
고정금리, 변동금리 모기지
점보통
피파이낸스
주택담보대출
그외 올림프루브먼트 등

Michael Lee's NMLS #1464242
Real Estate Sales License No. 0534406

Norcom Mortgage 회사 소개

Norcom Mortgage, Direct Lender Founded in 1996
Fannie Mae/Freddie Mac seller/servicer
Ginnie Mae issuer
In-house underwriting, processing, closing, servicing all centralized
In-house appraisal
Same day loan pre-qualification

128 Cambridgepark Dr. Suite 301 | 978.314.8818
Cambridge, MA 02140

사우스 보스톤에 주차시설 건설

워터프론트 총 2,100대 규모, 시 당국 다운타운 주차난 해결 기대 아파트, 기업, 호텔 등 재개발 수요 많아, 시내 주차난 해결에 의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다운타운의 자가용 통근자와 사우스 보스톤 재개발을 위해 워터프론트 지역에 주차시설이 확충된다. 새 주차시설은 보스톤 컨벤션 센터와 인더스트리얼 파크에 총 2,100대 수용 면적으로 건설 될 예정이다.

매사추세츠 항만국(Mass Port)은 컨벤션 센터의 D스트리트 부근에 1,550개의 새로운 주차 공간 확충과 함께 교통센터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보스톤 시 정부의 지원으로 진행될 이번 계획은 주차시설 건설과 함께 교통 센터 건설도 가지고 있다. 항만국은 새롭게 건설될 교통 센터에서 트램 정류장, 택시 및 우버 스탠드, 허브웨이 대여소, 세계 무역센터 역(실버라인)을 연결하는 환승통로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은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8,500만 달러의 자금이 사용된다.

이와 별도로 보스톤 도시계획과도 인더스트리얼 파크 (레이몬드 L. 플린 해양공원)에 550대 면적의 주차시설 건설을 계획 중이다. 2천 2백만 달러가 투자될 이 주차시설 계획을 위해 설계 회사를 찾고 있는 시 당국은 올해 착공에 들어가 내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차시설 확충 계획이 기존 보스톤 시내의 주차난 해결에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주차시설 인근 지역에 건설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재개발

지역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컨벤션 센터에 건설 될 주차시설의 경우 이미 주차 공간의 절반은 워터사이드 아파트 단지와 존 행콕 파이낸셜 본사 등 인근의 재개발 시설의 주차공간을 위해 사용 될 예정이다.

스포츠 용품 브랜드인 '리복'도 매사추세츠 캔톤에서 사우스 보스톤 지역으로 본사를 옮길 예정에 있어 주차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리복 본사에는 7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본사 건물에 주차시설이 충분히 확충되지 않을 경우 주차시설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또한 항만국은 장기적으

로 컨벤션 센터 호텔을 새롭게 건설 될 주차시설과 연결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 2,100대 수용 규모로는 보스톤 다운타운은 커녕 사우스 보스톤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도 벅차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역에서 근무중인 톰 씨는 “이 지역은 당장 더 많은 주차공간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동안 월간 주차요금이 두 배나 올랐다” 고 말하며 “새로운 건물이 건설될 때 마다 계속 주차장 요금이 오르고 있다” 며 불만을 표시했다.

itshunne@bostonkorea.com



워터프론트 지역에 지어질 새 주차시설은 보스톤 컨벤션 센터와 인더스트리얼 파크에 총 2,100대 수용 면적으로 건설 될 예정이다

오덕중 제일은 양덕? '아니메 보스톤' 개막

31일부터 3일간, 코스튬, 영화 상영, 잡화 판매 등 볼거리 풍성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오덕(오타쿠)중의 제일은 양덕(서양인 오타쿠)이니라'. 인터넷에서 우스갯 소리처럼 일컬어지는 이 말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미 동북부 최대의 아니메 축제 '아니메 보스톤 (Anime Boston)'이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하인즈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다.

2003년을 시작으로 매년 봄에 개최되어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일본의 대중문화와 애니메이션 및 코믹을 즐기고 소개하는 행사이다. 작년 아니메 보스톤 행사에는 관람인원 2만 7천여 명을 기록하여 역대 사상 최대 입장객을 기록했다.

올해 행사에서는 코스튬 플레이 대회를 비롯해 코믹 북, 잡화, DVD 등 애니메이션 관련 상품 판매, 작품 상영회, 작가 및 성우와의 만남, 각종 대회 및 전시회 등을 준비하여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마련 될 예정이다.

이벤트에 참가하는 초대 손님도 볼거리다. '아웃집 토토로'로 유명한 지브리 스튜디오의 전 제작국장인 키하라 히로카즈를 비롯하여, '카우보이 비밥'의 제작자 미나미 마사히코, '기동전사 건담'의 아무로 레이이치로 유명한 일본 성우계의 거장 후루야 토오루 등 일본

의 아니메 업계 인물 5명과 2팀의 밴드가 올해 행사에 초대되었다.

사전 관람자 등록기간은 10일까 지이며, 사전 등록 기간 이후의 입장권은 3일권이 성인 65불 (어린이 55불), 1일 입장권(일요일권만 판매)은 성인 25불(어린이 15불)이다. 관람자 등록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은 아니메 보스톤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공식 홈페이지 주소>
<http://www.animeboston.com>
<행사 장소>
하인즈 컨벤션 센터 (900 Boylston Street, Boston, MA 02199)
itshunne@bostonkorea.com



이 행사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각양각색의 코스튬 플레이를 보는 것도 아니메 보스톤의 또 하나의 재미다

집을 사고 팔면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주세요!

주택 거래가 활발해 지는 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궁금하신점 그리고 프로세싱 과정들을 손서대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생소한 단어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서류를 몇 바이어가 알고있어야 할 내용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이어분들께서는 집 구매 전에 미리 자신의 크레딧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한국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이 간혹 쉬이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 하겠습니다.

1. 용지 가능용역 확정
· 거래 승인이내
· 용지 보류가정기 문의
2. 실소명
· 용지에서 바이어는
· 계약서를 작성하고
· 앞으로 바이어를
· 할당 부분상
· 계약금을 지불한다.
3. 오퍼받기
· 부동산 세 아겟과
· 관할 용수 하향제
· 도는 길비 도제
· 계약서를 보낸다.
4. 인스펙션
· 인스펙션을 통해
· 문제가 되는 부분을
· 인지한다.
5. 감정
· purchase and
· sold agreement 후
· 감정
6. 공개서명사인
· 이자율은 특별 바이어가
· 용지승인 후
· "Cash Lock"을 통해
· 42일까지 바이어
· 마감까지 계약을 할
· 42일을 할당해준다.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gchoi@ownnewengland.com, pju@ownnewengland.com

BERKSHIRE HATHAWAY
Home Services

위키리크스, CIA 해킹문건 폭로... '제2의 스노든' 되나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미국의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해킹 정보 관련 문건 9000여 건을 폭로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 TV나 애플의 아이패드 등도 감청 도구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건의 양이나 내용 등만 봐도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7일 AFP통신에 따르면 위키리크스는 웹사이트에 CIA 사이버 정보센터의 문건을 게재했다. CIA 사이버 정보센터는 미국 버지니아주 랭리에 본부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지사를 두고 있는 조직이다.

위키리크스는 해당 문서에 CIA의 해킹 툴(tool)과 코드가 담겨 있으며, 이 문서가 사이버 보안 커뮤니티에 유출돼 그 중 일부를 받아 공개한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서엔 CIA가 전자기기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약점과 그 약점을 파고 들어 해킹하는 방법 등이 포함돼 있다.

해킹 툴도 다양하다. CIA는 바이러스, 트로이 등 전자기기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는 1000여 종류의 멀웨어 시스템을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기기의 종류나 제작사도 가리지 않았다. 애플의 아이폰은 물론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탑재된 스마트폰, 마이크로소프트(MS)의 소프트웨어, 삼성전자의 스마트 TV 등이다.

특히 삼성 스마트 TV의 경우 TV를 끈 상태에서도 TV에 설치된 마이크를 통해 도감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자동차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해킹 대상

이 됐다. 위키리크스는 CIA가 스마트폰에 침투 소프트웨어를 심으면 왓츠앱이나 텔레그램, 시그널 등 메신저 서비스가 메시지 내용을 암호화하기도 전에 모든 대화 내용을 해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FP에 따르면 조나단 리우 CIA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정보당국의 문서로 알려진 것의 진위여부나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손 스나이퍼 백악관 대변인도 "아직 완전히 증명되지 않은 것"이라며 입을 닫았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트위터를 통해 "(문건은) 진짜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제조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까지 해킹 연구 대상이 됐던 것에 대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모하다"고 했다.

위키리크스의 이번 폭로 문건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지난 2013년 스노든이 미 국가안보국(NSA) 정보 수집 실태를 폭로한 이래 최대 파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는 "이번 문건은 CIA가

미국 정부의 전산 스파이의 몸통인 NSA와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은 "매우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 프린티어전자재단(EFF) 측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CIA의 무차별 해킹 실태를 강하게 규탄했다. EFF는 "CIA가 전 세계 수백 만명이 의존하는 안드로이드폰, 아이폰, 삼성 스마트 TV 등과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우려스럽"이라며 "약점을 보완하는 대신 이를 놔두기로 결정한 CIA 때문에 우리는 더 위험해졌다"고 했다.

유출된 문건에 담긴 내용은 '사이버 무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위키리크스는 "문건이 유출됐다는 것은 CIA가 그들의 무기를 아직 완전히 관리하지 못한다는 점을 방증한다"며 "CIA에서 사용된 수많은 (전자기기의) 취약점들이 확산될 것이고, 다른 정보 기관들이나 사이버 범죄자들은 이미 찾았을 수도 있다"고 했다.

yiji@news1.kr



미국기안보국(NSA) 정보수집 실태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

미국인 56%, 트럼프 측근-러시아 유착 의혹 '특검 수사' 원해

세션스 법무 불신하는 응답도 38%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미국의 절반 이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과 러시아 정부 유착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지지한다고 미 폴리티코가 8일 보도했다.

미 정치외교/모닝컨설트가 2~6일 199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여론조사(오차범위±2%)에 따르면 미국 등록 유권자 56%는 트럼프-러시아 유착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를 반대한 30%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당적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 75%, 공화당 지지층 39%, 무당파 54%가 특검 수사를 지지했다.

한편 응답자 41%는 러시아 개입이 지난해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반면 42%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답해 양

쪽 의견이 엇비슷하게 갈렸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지난 2일 트럼프-러시아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에 불관여하겠다고 공표한 직후 진행됐다.

세션스 장관은 지난해 대선이 진행되는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세르게이 키슬랴크 주미 러시아 대사와의 만남을 가졌으나 이를 지난달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거론하지 않아 위증 의혹에 휩싸였다.

이번 조사에서 유권자 38%는 세션스가 청문회에서 진실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가 진실을 말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29%,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은 32%였다.

yjw@news1.kr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Master Golf Professional
 마스터 US 월드 리칭 프로
 sj.usgolf@gmail.com

857.600.6755

HAPPY 해피돌상

고급의 전통상차이 30년 100% 만족 보장, 100% 만족 보장, 100% 만족 보장, 100% 만족 보장

문의 617.248.3131 Happydol@gmail.com

Looking for Nail, Esthetician and Massage Technician

COCO NAIL & SPA TEL: 617.969.0406
 1175 Walnut St. Newton, MA 02461

PLUSH NAIL & SPA TEL: 617.244.6700
 80 Langley Rd. Newton, MA 02459

WE DO | NAIL, WAXING, FACIAL, MASSAGE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유가 '퍼펙트스톰'...OPEC 균열 + 美 재고 ↑ + 세일증산

"세계검사협회 총회 참석 등...특별한 의미 없는 통화"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국제 유가의 심리적 지지선 배럴당 50달러선이 위협 받고 있다. 미국 원유 재고가 9주 연속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아주 취약한 시점에 나왔다고 CNBC방송이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평가했다.

헤지펀드 '어게인캐피털'의 존 킬더프 창립자는 8일 CNBC방송에 출연해 유가가 지난해 12월 기록했던 저점 49.95달러를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킬더프는 유가 50달러는 안전관인데 이제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며 42달러까지 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3개월 동안 유가는 49.61달러와 55.24달러에서 움직였다.

킬더프는 유가가 지난 3개월 동안 박스권에서 벗어나 떨어질 모든 요인들이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감산을 이행 중인 석유수출국기구(OPEC) 공조 균열부터 IHS마켓 세라위크 컨퍼런스에 모인 각국 석유장관들의 비판적 전망, 미국의 경제활동 부진까지 유가를 끌어 내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칼리드 알-팔리흐 사우디 아라비아 석유장관은 7일 세라위크에서 OPEC의 감산을 통한 개입에 대해 "제한된 기간"동안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라위크에 모인 OPEC 석유장관들은 감산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균열이 더 크게 보였다.

톰 클로자 오일프라이스 정보서비스 에너지분석 글로벌 대표는 "다른

산유국들이 감산에 협조하지 않거나 속인다면 사우디가 누군가의 봉(鳳)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셈"이라고 말했다.

감산 연장논의가 재개될 수 있다는 낙관론도 있다. 리포우원유협회의 앤디 리포우 대표는 50달러선이 붕괴되면 오는 5월 OPEC 정기 총회에서 감산 연장을 논의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리포우 대표 역시 미국의 정유사들이 설비보수 시즌을 맞이한 만큼 재고 증가세는 한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50달러선이 붕괴되면 막대한 매수포지션 청산이 일어나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리포우 대표는 말했다. 그는 "지난 몇 주 동안 매우 빠른 범위에서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시장이 마치 달궈진 주전자 같다"며 50달

러 붕괴가 일어나면 "거칠게 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유저장고 대여 만료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클로자 대표는 지적했다. 많은 원유 트레이더들은 지난해 이맘때 1년짜리 리스 계약을 체결했고 당시 유가는 수십년 만에 최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었다.

이제 원유 선물곡선이 플랫트닝하면서 선물이 현물에 비해 낮아 트레이더들이 1년짜리 리스를 재계약할 유인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클로자 대표는 앞으로 30일 동안 유가가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겠지만 "대체양적 하락"을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드라이빙 시즌이 되면 유가가 50달러 이상으로 오를겠지만 "지금부터 5월까지 폭풍우가 몰아치는 험악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kirimi99@news1.kr



루이지애나주 한해상 시추설비



6일 미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오바마케어' 폐지 및 대체안을 발표했다

이미지 망칠라... "트럼프케어라 부르지마"

(로이터=뉴스1) 김윤정 기자 = 마천루, 호텔, 카지노, 책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며 소위 '이름 장사'를 해온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곳엔 자신의 이름을 붙이지 못하게 했다. 오바마케어 폐지·대체안, 미국건강보험법안(AHCA)이다.

8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 참모진들이 AHCA를 '트럼프케어'라 부르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캘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이날 아침 폭스뉴스에 출연해 "원한다면 트럼프케어라 부를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참모진)들 중 어느 누구에게 '거기 내 이름 좀 붙여줘'라고 말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건강보험법안이라고 부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손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더 강경하게 말했다. 그는 이날 "그것은 트럼프케어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공식적인 이름으로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관련 법안 이름은 종종 정치인의 이름을 따 붙여졌다.

1990년대엔 힐러리케어가, 그 후엔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밋 롬니의 이름을 딴 롬니케어가 있었다. 오바마케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세 번의 사례 모두 비판을 받았고 이름이 거론된 정치인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었다. 이 때문에 발표 직후 반대 여론에 휩싸인 AHCA에 대해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의 의중을 파악한 듯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케어'를 연발하고 있다. 클레어 맥카스킬 상원의원(민주·미주리주)은 "(오바마케어) 폐기 후 우리에게 남는 것은 트럼프케어"라며 "대통령은 그의 이름을 붙인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케어'라는 이름은 꺼리지만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폴리티코에 "백악관은 전적으로 AHCA를 지지하며, AHCA의 실패는 곧 대통령의 큰 실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yjyj@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학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레스토랑 창업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 ☑ 치킨 관련 전문업체
- ☑ 소스 공급 및 요리 기술 전수
- ☑ 영업 노하우 전수

치킨 가게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 20년 경력의 파방돌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스턴에서 레스토랑 운영중이므로 인제돈 맛과 실습 가능.
 주방기술자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분, 더 이상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파방돌로 연락주세요.
 검증된 노하우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치킨 메뉴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
 식당을 준비하시는 분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



모든 제품은 한국 파방돌공장에서 안정적 공급이 됩니다.
 안심하고 정사에만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

치킨양념 소스	참깨 소스	과전 파우더
치킨간장소스	불고기 소스	프렌치프라이 시즌닝
치킨 파우더	순두부 시즌닝	부대찌개 소스
치킨 염지제	순두부 다대기	갈비 소스, 자육복음 소스
떡볶이 소스	샤브 육수	김치찌개 소스

전화: 857.237.4985(문자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메일: farandoleusa@gmail.com
 웹사이트: www.farandole.co.kr
 한국공장: 경기 안산 단원 상곡 638-4 102동 파방돌

파방돌 공장 전경



레스토랑 주소: 175 Massachusetts ave, Boston, MA 02115 (버클리 음대 맞은편)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JESSICA BEAUTY

한국 종합 화장품 | 참존 화장품 직영

시선집중 잡티개선, 주름개선, 탄력개선, 미백까지...

“화장품에도 당신의 인격과 품격이 묻어납니다”

나만의 화장품으로, 내 피부는 내가 만든다.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상륙 참존 스킨타우샴에서 피부관리 하시는
 멤버에게만 사용하는 제품

처진 피부에 회소식

스킨타운 프리미엄 리와이징 크림으로
 처진 피부를 개선 (탄력강화 조식이 살아납니다)
 잡티 개선 참연셀 비타민C.E크림



617.770.0188
 온라인 쇼핑몰 오픈 | 무료배송

JessicaSecret.com

219 Quincy Ave. #31-A, Quincy, MA 02169
 金門 Kam Man Food 중국마켓 안에 있습니다

검찰 '파면 처'에 영장 '초강수' 카드 꺼낼까

전문가 "영장청구 가능성 커"... "법원 판단도 고려해야"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10일 인 용되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대대적인 수사가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총 14가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만큼 검찰이 구속영장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낼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결정에 따라 '자연인 신분'이 됐다.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면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큰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수사절차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통보를 하고,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나아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고려했을 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는 총 14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첫 국정농단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대기업에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롯데그룹에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최씨의 지인회사 11억원대 납품계약 및 최씨 소유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 70억원대 발주 압력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강요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미수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9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특검팀은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수수 및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시행, 공무원·민간영역의 부당 인사개입 등 5가지 혐의를 추가했다.

적용 법 조항은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등이다. 특검팀은 삼성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포함해 4가지는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코어스포츠에 지원하거나 지원하기로 약속한 213억원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이 두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최씨가 설립·운영에 개입한 한국동계스포츠재단에 지원한 16억2800만원은 제3자 뇌물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대기업으로부터 두 재단 출연금을 뜯어낸 것에 대해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적용했으나, 특검팀은 이를 뇌물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헌법 가치를 위반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3개 범죄사실을 공모한 피의자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 등과 공모해 현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명단을 작성하게 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의 사직도 강요했다. 노 전

국장은 2013년 청와대 지시로 승마협회 감사에 나섰다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뒤 공직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그뿐만 아니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공모해 블랙리스트 실행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직서를 받는 일에도 깊숙이 개입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상화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이 초고속 승진할 수 있도록 압력도 행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안중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의 통해 독일에 최씨를 도와준 이 본부장의 승진을 직접 챙겼다. 순조롭게 일이 풀리지 않자 안전 수석은 김경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당장 본부장으로 승진시켜라. 이게 어디 내 이익을 위해 하는 일이나.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느냐"고 화를 내기까지 했다.

특검팀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사업과 관련한 최씨의 이권개입 행위에도 박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의 요청으로 유재경 주미안파 대사와 김인식 코이카 이사장을 임명했는데, 이것은 최씨의 비리행위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

이 때문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한 수사의지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사라졌다. 검찰 수사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 자체가 사라지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고 봤

다. 한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수많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중 한명"이라며 "검찰이 조사하다가 구속영장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란 특수한 지위를 지우고 일반인에게 이 같은 범죄혐의를 적용한다면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대우도 받지 못한다.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최진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도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검찰이 판단한다면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토대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법률적인 판단으로는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전직 대통령을 구속까지 해서 수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는 법원과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전

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도 영장 발부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률적 판단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전직 대통령을 구속해 수사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측면에서 고민을 할 수도 있다"며 "수사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기각 시 여론 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 수사의 가장 큰 변수는 곧바로 대선국면에 돌입하는 정치적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속도감 있는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으나 대선과 맞물린 정치권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2기 특수본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 인력 등 31명 규모로 지난 6일 공식 출범했다. 그중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형사8부가 전담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cho84@news1.kr



박근혜 전 대통령

차츰 "만장일치 충격...이 결정이 올바른가"

"헌법재판관 법과 양심에 따른 게 아니다" 강한 반발

(서울=뉴스1) 성도현, 김일창 기자 = 헌법재판소가 10일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65)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자 박 전 대통령 측은 충격을 금치 못하면서 현재의 판단이 올바르지 않다고 반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의 서석구 변호사(72·3기)는 이날 현재 결정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 8대0 탄핵(결정)은 정말 놀랍고 충격적이다. 이런 결정이 올바르다고 보느냐"며 "대리인단과 합의한 뒤 대책을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이 결정은 헌법재판관의 법과 양심에 따른 게 아니다"며 "(옛)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한 (현재의) 순수한 법과 양심에 따른 (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가) 촛불집회 민심이 손을 들어

준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촛불집회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주도했는데 도심이 무법천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극기 집회에 500만명이 모였고 광화문·대한문·남대문 등을 다 덮었다. 이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가"라며 현재의 결정이 치우쳤다고 문제 삼았다.

서 변호사는 또 "박 전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전원 사퇴 등) 중대 결심을 밝혔는데 이후 국회 소추위원측이 (예상) 선고날짜를 발표하고 (박한철) 전 현재 소장이 (퇴임 전) 3월13일 이전에 선고하겠다고 했다"며 국회와 현재의 교감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언론은 (대리인단 측의) 중대결심 표현에 대해 실제로 탄핵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대선일정 등을 보도했다"며 "현재 측과 소

추위원장 측은 혼란보도를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 변호사는 특히 최순실씨(61)의 측근이었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41)의 녹음파일을

현재가 탄핵사유와 무관하다고 밝힌 점 등을 들어 현재의 결정에 의문을 표했다.

dhspeople@news1.kr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MAR. 10 - MAR. 16, 2017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KIMCHI BACON PANCAKE

This is the ultimate comfort food that satiates all your cravings.

새콤하게 잘익은 김치와 진한맛의 베이컨이 어우러져 생각만해도 군침이 도는 맛있는 김치전을 H마트와 함께 만들어보세요.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https://www.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https://www.pinterest.com/hmartusa)



- NATURE'S Tofu 자연담은 두부 Soft/Firm - Moz. **\$1.19**
- Israeli Clementine 이스라엘 클레멘타인 **\$1.79**
- Gobo 우영 **\$1.99**
- Korean Singo Pear 한국산 신고배 **\$24.99** (box)
- Washington Fuji Apple Premium 워싱턴 후지사과 프리미엄 **\$1.29** (lb.)
- Kabocha 단호박 **\$0.88** (lb.)
- Ginger 생강 **\$1.29** (lb.)
- Crown Broccoli 크라운 브로콜리 **\$0.88** (lb.)
- Purple Sweet Potato Hawaii 보라색 고구마 하와이 **\$1.99** (lb.)
- Oriental Sweet Potato 고구마 Medium Size **\$1.29** (lb.)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 Sliced Pork CT Butt Steak 소금구이용 돼지 삼겹살 **\$4.99** (lb.)
- Ox Tail 생 소꼬리 **\$10.99** (lb.)
- Sliced Pork Single Belly for BBQ 바베크용 생삼겹살 **\$7.99** (lb.)
- Chicken Drumstick 쇠창 드럼스틱 **\$1.49** (lb.)
- Sliced Beef Short Plate 냉동 삼겹 양지 슬라이스 **\$7.99** (lb.)
- Marinated Sliced Beef Ribeye Bulgogi 양념 소불고기 **\$6.99** (lb.)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 Kyong Gi Medium Grain Rice 경기대 **\$25.99** (40 lb.)
- GlucO Pocky Biscuit Sticks **\$2.99** (Chocolate - 4.4oz / Strawberry - 4.1oz)
- Green Tea Seasoned Laver **\$9.99** (Original - 3.1oz x 100g box)
- CJ Cooked White Rice **\$12.99** (CJ 햇반 박스 2.4oz x 12oz box)

2017년 미국 동부지역 통영명품 수산물 특판전

TONGYEONG PREMIUM SEAFOOD SPECIAL SALES

Special SALE

Anchovy / Conger eel / Oyster
Crab / Sea squirt / Natural seasoning / Laver

MAR. 17th - 26th, 2017 at Hmart Burlington stores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 BANTRY BAY Mussels in a Garlic Butter Sauce 갈릭버터 홍합 1 lb. pkg. **2\$4.99** (pkg./lb.)
- BANTRY BAY Mussels in a Tomato & Garlic Butter Sauce 토마토 버터 홍합 1 lb. pkg. **2\$4.99** (pkg./lb.)
- TONGTONGBAY Pollock Fillet 통통베 동태 전갈 Family Pack/2 lbs. - pkg. **\$3.99**
- Cooked Conch Meat 소라살 **\$8.99** (lb.)
- Salted Yellow Croaker 자반 참조기 **\$5.99** (lb.)
- Live Eel 활장어 **\$7.99** (lb.)

- CJ Cooked White Rice w/ Soybean Paste Bibimbap **\$1.99** (9.8oz)
- HAOREUM Canned Boiled Mackerel Pike **2\$3** (14.1oz)
- CHORIPDONG Patties **\$4.99** (Choripung이 새우/해물 완자 3.2oz)
- HAOREUM Citron Tea with Honey **\$4.99** (3.2oz)
- ARIZONA FARM Cactus Honey Powder **2\$5** (16oz)
- KTOON Cooked Seasoned Loach Soup **\$5.99** (케이리운 남원 추어탕 13.8oz)
- HAOREUM Premium Rinsed Barley **\$4.99** (웨오름 보리차 6.1oz)
- SAMJIP Bun **2\$3** (삼겹살 꼬방 3oz)
- CROWN Choco Pie **2\$3** (크라운 초코파이 12.7oz)
- NONHEUP Asian Apricot **\$21.99** (농협가래 사과맛 700ml)
- WOONSIN Green Plum Drink **\$1.99** (쫄면 초록 대실 드링크 1.1L)
- LOONG Argold O Vitamin Drink **\$5.99** (일등 계곡 아로골드 비린 과일 음료 100ml x 100pack)
- Pilow **\$19.99** (왕다 밀형 베개 Gold Pillow/Queen/18x 24)
- GARSAHNERI Shing Cushion **\$9.99** (갑사 한실 병석 Red/Green/White/100x100)
- DANKO Arroz Penne/Arroz Paq **\$8.99** (다나온 아로미 극세사 아미 쌀떡 1kg)

During the selling process, there may be changes in price. Best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special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special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MART BURLINGTON STORE: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 TEL: 781-321-4570 / STORE HOURS: Sun - Thu: 9am - 9pm / Fri - Sat: 9am - 10pm

"직원들 무급휴가 보낼 판"...中관광객 자취 감춘 제주

전세버스 · 면세점 · 호텔업 등 휴업 위기...대책 없어 막막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15일 까지 손님이 한 명이라도 아쉬운 판에 크루즈마저 취소됐네요."

9일 오전 7시와 오전 8시 제주항여객국제터미널에 각각 기항할 예정이던 코스타 세레나호(11만4000t)와 MSC 리리카호(5만9000t)가 기상 악화로 인해 입항이 취소됐다.

아침 최저기온이 4도에서 7도인 포근한 날씨였지만 해상에 풍속이 10~16m/s로 불어 접안을 할 수 없다는 게 선사 해운대리업체 측의 설명이다.

중국 정부가 한국 관광 금지 시점으로 잡은 15일까지 앞으로 6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전세버스 운전자들의 한숨은 더욱 커졌다.

크루즈 2척에 오기로 했던 외국인 관광객은 각각 2000명, 1600명 등 3600명으로 전세버스 한 대당 40명씩 잡으면 약 90대의 전세버스가 가동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야속한 날씨 탓에 빈 버스를 끌고 제주항여객터미널을 빠져나가는 전세버스 운전자들은 "15일까지는 크루즈 관광객들로 버티고 있는데 이후부터는 통근·통학만 뛰어야 할 것 같다"며 "차량 할부 대금과 유지비를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에 오기로 했

던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무더기 예약 취소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15일 이후 일정부터는 크루즈 선사들까지 기항 취소를 통보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 관광객 급감에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향토음식점 책임자 A씨는 "예전에는 하루에 500명에서 많게는 1000명까지 왔는데 이제는 100명 남짓 온다. 거래하던 여행사가 손님이 끊겨서 앞으로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호텔이나 카지노를 찾은 개별관광객들도 발길이 뜸 끊겼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이어 "중국 손님들이 많아서 주방장도 직원도 모두 중국인으로 채용했는데 이들을 모두 내보낼 수도 없는 일 아니냐"며 "메르스 때는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앞이 캄캄하다. 대책이 없어서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50% 이상인 외식업체의 경우 근래 들어 취소율이 80~90%에 이르러 폐업이나 업종 변경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년간 중국인 관광객을 통해 수익을 올린 외국인 전용 사후면세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제주국제공항 인근에서 사후면세

점을 운영하는 B씨는 "지난해 말 사드 배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반 토막 나더니 올 들어 70%나 줄었다. 인건비 총당이 어려워져 직원들에게 무급휴가를 줄 생각을 하고 있다"며 "나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문제지만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쩔 수 없다"로 토로했다.

B씨는 "행정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보겠다고 시장 다변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당사 사업 존폐 위기에 처한 우리 입장에서는 먼 나라 얘기"라며 "관광진흥기금을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빚이어서 실질적인 대책은 될 수 없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도내 시내면세점 3곳과 출국면세점 1곳, 지정면세점 4곳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겠지만 사드 보복이 장기화될 경우 693곳에 이르는 사후면세점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관광호텔업계에도 찬바람이 불었다.

중국인 관광객으로 객실이 꽉 찼던 제주시 연동의 한 관광호텔은 재정난을 이유로 '그동안 성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을 내걸고 지난 1일부터 사실상 폐업에 들어갔다.

또 다른 관광호텔 관계자 C씨는 "중소형 호텔은 중국 관광객 점유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15일 이후 살아남기 힘들 것으로 점쳐지는 곳도 많이 있다"며 "외곽의 작은 분양호텔의 경우

에는 4~5만원에 숙박비를 후려치는 경우도 나오고 있어 업계 전체의 출혈 경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광호텔 118곳을 비롯한 도내 관광숙박시설 총 386곳 중 몇 군데나 적자를 내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이 나오고 있다.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80% 이상을 유치하던 여행업계 1위 뉴화청 국제여행사가 최근 잠정 휴업에 들어 가면서 업계의 근심은 더욱 커졌다.

2011년부터 전세기를 통한 부정기 신규 노선을 개설해 중국인 단체관광 시장의 양적 성장을 견인한 뉴화청은 그동안 여행업 4곳, 관광업 50곳, 전세버스업 15곳, 중국인외식업 30곳, 관광객이용시설업 30곳과 연계해왔다.

하지만 철용성 같던 뉴화청 마저 사드의 보복 조치로 인해 문을 닫으면서 도내 중국계 운영 여행사 70여곳을 비

롯한 관련 연계들이 모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9일 제주도가 발표한 '중국의 한국 관광 금지에 따른 일일동향'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28개 여행사에 예약했던 11만4493명이 제주 관광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중국 국가여유국이 지난 2일 베이징 일대 여행을 소집해 한국행 여행 상품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전면적인 판매 중단을 구두로 지시한 이후 엿새 만에 발생한 무더기 예약 취소 사태다.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관광지로 꼽은 성산일출봉의 경우 올 들어 지난 8일까지 15만1526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해 전년 같은 기간(19만1270명) 대비 약 20%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asy0104@news1.kr



9일 제주시 연동 한 면세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 관광 금지령을 내린 이후 중국인들의 관광계획이 취소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부지작업 전 장비반입, 사드 '속전속결'...이르면 5월 배치완료

환경영향평가 등 부지 걸림돌 제거되면 곧바로 실배치할 듯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6일 오산 미 공군기지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2기가 전개됨에 따라 이르면 5월 중 경북 성주CC에 실제 작전배치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7~9월께 배치될 것으로 예상됐던 사드 체계를 한미 양국이 앞당기기로 한 건, 무엇보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7일 사드 발사대 2기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부지 조성이 진행 중 사드배치가 전개되는 이유에 대해 "북한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 가속화되는 측면에 우리 대응도 가속화한다는 측면"이라며 "사드 체계가 순차적으로 전개될 것인데 실제 작전 운용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국방부는 이달 초 성주 부지를 롯데로부터 인수하면서 5~7월께부터 본격적인 사드 배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번 전격적인 조치로 배치 완료는 수개월 정도 빨

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롯데와의 부지교환 계약을 체결한 이후 미국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 부지 공여를 위한 협의를 통해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시설공사 등을 거쳐 사드 체계를 배치할 계획이었다.

부지 공여는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등과 함께 SOFA합동위(외교부), SOFA시설구역분과위(국방부), SOFA환경 분과위(환경부) 등의 단계별 진행과정을 거친다.

이와 동시에 사드가 배치될 성주CC관련 지역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질, 대기, 토양 등 6가지 항목에 따라 평가가 진행된다. 이후 한미 양국은 부지를 공여하기 전 현장에 나가 측량, 지질조사 등 전문가 실측 과정을 진행한다.

당초 군 당국은 환경영향평가가 별 이상 없이 진행되고 이후 한미 양국의 부지공여 협의가 끝나면, 사드배치를 위한 시설공사 착공이 빠르면 오는 5월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날 조치로 미국은 사드 포대 전체

를 주한미군지역에 5월 전까지 모두 들여와 전개 준비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 대선 전 배치가 완료될 수도 있다.

부지 배치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애물을 모두 제거하면, 곧바로 사드 작전배치를 완료하겠다는 게 한미 양국의 판단으로 분석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현재의 탄핵인용이

결정되면 조기대선 가시화로 사드 배치에 대한 논란이 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체계 배치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전했다.

argus@news1.kr



한미 양국은 7일 주한미군 사드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6일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한 미 수송기가 사드 장비를 내리고 있다.(주한미군 제공)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ww.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isu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Realtor Direct: 508.361.6064 sbok@bostonpremierrealty.com	 줄리전 Realtor Direct: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	---	--	---

NEW LISTINGS LISTINGS

 Single Family 5 Duxton Lane Acton MA 9,547sqft, 9.13 Acres 8 Bed 4.5 Bath SOLD	 Condo 17 Berkeley Ave, Boston MA 2 Units. Multiple Units for sale. 2022 sq ft finished Condo. 2nd Floor 2 Bed, Hard W- Floors, granite, stainless steel Asking \$891,000, \$999,000	 상점 & 스파 Roslindale 위치, 1,200 sqft, Rent \$2,500 Asking \$45,000	 한식&일식 식당 Physical 양매 위치, Full Equip, Lots of foot traffic, great exposure, recently renovated, Asking \$450,000	<p>LISTING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Full Price \$999,000 NEWBY 개, 무방 방 11,000 SOLD 2. Full Price \$750,000 Middlesex County Office Building SOLD 3. Full Price \$695,000 5050 4th St, Boston SOLD 4. Full Price \$695,000 7000-7000 Ave 개, 남동 주택, Asking \$65,000 5. \$500,000 2nd Floor SOLD 6. \$450,000 Asking \$25,000 SOLD 7. \$400,000 721 Harvard St, 2nd Fl, Boston SOLD 8. \$350,000 20 1/2 Ave, Boston SOLD 9. \$300,000 20 1/2 Ave, Boston SOLD 10. \$250,000 20-25 1/2 Ave, Boston SOLD 11. \$200,000 Asking \$15,000 12. \$150,000 94 Oak St, Boston SOLD 13. \$100,000 47 Haver Ave, 1st Fl, Cambridge SOLD 14. \$100,000 47 Garden St, 1st Fl, Boston SOLD 15. \$100,000 50-19 Essex St, 1st Fl, Cambridge SOLD 16. \$100,000 31 Harvard St, Cambridge SOLD 17. \$100,000 100 Parker St, 1st Fl, Boston SOLD 18. \$100,000 8 Boston Way, Boston SOLD <p>NEW Full Price \$999,000 1000 150 North St, 1st Floor, Asking \$199,000</p>			
 한식&일식 식당 보스턴 서쪽, Full Equip 면적상: 1.7M,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799,000	 일식당 Beer and wine 포함 Leaseonly 지역 좋은 위치 Nice Location Asking \$180,000	 컨비니언스 스토어 Cambridge에 위치 Asking \$140,000	 비즈니스 오피스 Brookline 현재 세무소겸합용, 좋은 임대수입 Nice Location Asking \$509,000	 한국식당 보스턴 남쪽에 위치 Full Equip, 양방향 수로 넓은 주차 Asking \$140,000	 세탁소 보스턴 북부 세탁소 안정적 수익 Asking \$160,00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보경: 508.361.6064 줄리전: 978.494.2043

文 36.1%, 黃 14.2%, 안희정 12.9%, 李 10.5%, 안철수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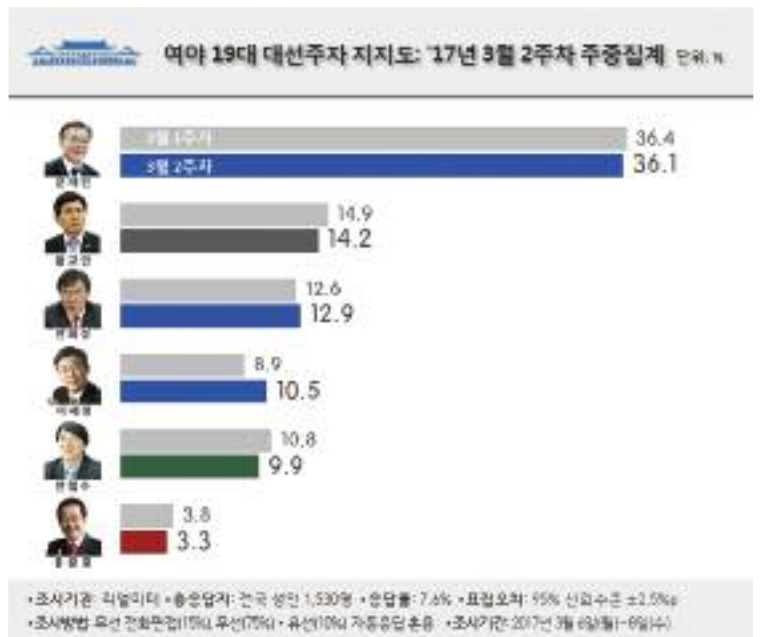
리얼미터 조사... 文·黃↓, 안희정·이재명↑
당 지지율, 민주당 49.3%로 50% 육박

(서울=뉴스1) 서승희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6.1%로 여야 대권주자 지지율 선두를 지키는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차범위 내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앞서는 2위에 올랐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9일 발표한 3월 2주차 주중집계에 따르면 문 전 대표는 지난주 조사보다 0.3%포인트 하락한 36.1%의 지지율로 1위를 유지했다. 황 권한대행은 0.7%포인트 하락한 14.2%로 뒤를 이었다. 안 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지율 상승세를 보였다. 3위인 안 지사는

0.3%포인트 상승한 12.9%의 지지율을 얻었고, 이 시장은 1.6%포인트 상승해 10.5%로 두자릿수 지지율을 회복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0.9%포인트 내린 9.9%로 집계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3.3%,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3.2%,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4, 손학규 전 의원은 1.9%,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6%로 나타났다. 한편 정당별 지지율에서는 민주당이 2.1%포인트 상승하면서 49.3%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고 있다. 자유한국

당은 0.9%포인트 하락한 13.5%, 국민의당도 0.6%포인트 하락한 10.3%, 바른정당은 0.6%포인트 하락한 6.0%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0.7%포인트 상승해 6.0%를 달성했다. 한편 MBN·매일경제 의뢰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3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5%), 무선(75%)·유선(1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7.6%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ong65@news1.kr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3월 9일 발표한 3월 2주차 주중집계에 따르면 문 전 대표는 36.1%로 여야 대권주자들 중 지지율 선두를 지켰다

김종인표 연대 청사진 나오나... 쏜, 유승민·남경필 연쇄회동

유승민 '경제'·남경필 '연정'에 공감대

(서울=뉴스1) 서승희, 김정률, 이정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잇따라 회동하면서 9일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전 대표의 연대 구상이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일식집에서 유 의원과 오찬회동을 하고 이튿날인 10일에는 남 지사와 만나 점심식사를 함께 한다. 김 전 대표는 유 의원과 '경제통'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남 지사와는 '패권정치 배격'이라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 전 대표는 탈당 전에 유 의원, 대선출마를 선언한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한국경제의 길을 묻다'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제라는 새로운 고리로 한 연대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오찬 회동도 당시 토론회를 함께하면서 잡힌 약속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대표의 입당) 설득이라기 보다는 대선배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이 어떤지 들어보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 전 대표는 남 지사와는 친박(親박근혜)과 친문(親문재인) 양 세력을

배제한 '열린 정치'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합리적 중도 대연합에 대해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남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박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중심의 친문 세력을 패권세력이라고 지칭하며 오래된 '끼리끼리' 정치를 배격하고 연정(연합정부)을 통한 새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남 지사는 앞서 문 전 대표와 박 대통령의 공통점으로 패권주의, 후광정치, 준비미비 등을 꼽으며 "문 전 대표의 리더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인다.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에 또 한 번 불행한 역사가 반

복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대표도 앞서 문 전 대표를 겨냥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지 얘기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며 "남이 써준 공약을 줄줄 읽는 대선주자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반문(反문재인) 연대'를 추진하고 있는 김 전 대표와 친박과 친문을 배제한 '합리적 중도' 대연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탄핵 선고 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김 전 대표가 바른정당 대권주자와 연쇄 회동을 하면서 그의 바른정당 입당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song65@news1.kr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이재명 "中, 경제보복 조치 즉각 중단해야...한중 모두 손실"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측은 9일 고고도미사 일방어체제(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로 중국이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 시장 캠프 대변인실은 논평을 통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시장측은 "가중되는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는 사드배치 인한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해결하기에는 근본적인 대안이 못된다"며 "오히려 위기를 더욱 악화시켜 한중간의 막대한 손실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밝힌 한반도 평화구축프로세스 구상처럼, 중국은 위기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나아가 동아시아에서의 전쟁위기와 군비경쟁을 끝내고 한반도의 평화구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측은 "다시 한번 양국간 국민에게 깊은 상처와 국가적 이익이 훼손 되는 것을 막고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갈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한 중국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sanghwi@news1.kr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불판

바베큐&라운지



ALL YOU CAN EAT:
\$39.95

안장살, 주물럭, 불고기, 차돌박이, 닭불고기, 돼지불고기, 삼겹살, 뼈없는 갈비, LA갈비, 통심, 곱창, 새우, 오징어, 모듬고기 등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각종 반찬 및 공기밥



가장 신선한 고기를 마음껏 즐기세요!

영업 시간
 Mon-Thu : 11:30am to 10:00pm
 Fri-Sat : 11:30am to 11:00pm
 Sun: 12:00pm to 10:00pm

연회석
60여명 수용, 가라오케 완비

스시바
각종 스시 및 상생한 회

히바치

바베큐
안장살, 주물럭 등 각종 바베큐

BAR
Full Liquor 라이센스




BULPAN RESTAURANT
Korean BBQ, Hibachi, Sushi & Chinese


781.863.2800

27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스트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톱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클 멘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33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dentallexington.com
www.icodental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a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종현
 교정 전문의

현대중 변압기, 美서 반덤핑 관세 폭탄...3%→6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현대중공업의 변압기 제품이 미국에서 반덤핑 관세 폭탄을 맞았다.

9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무부는 현대중공업이 수출하는 대형 변압기에 61%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최종 관정을 내렸다.

이번에 관세 폭탄을 맞은 제품은 2014년 8월부터 1년간 미국에 수출한 물량이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예비판정에서 현대중공업 3.09%, 일진 2.43%, 효성 1.76% 등의 반덤핑 관세

를 매긴 바 있다.

현대중공업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이번 관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납득이 안가는 결과"라며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과 달리 효성, 일진 등은 예비판정과 비슷한 수준의 최종판정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미국 변압기 제조업체의 견제와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맞물리면서 관세 폭탄이 내

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ABB, 델스타, 펜실베니아 트랜스포머 테크놀로지 등 미국 변압기 제조업체들이 현대중공업을 지속적으로 견제해왔다"며 "여기에 최근 트럼프 정부의 자국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ABB는 지난 2012년 캐나다에서도 한국산 관련 제품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한 바 있다.

iron@news1.kr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현대중공업 제공)



박영수 특별검사

"박영수 특검 집앞 100m 몽둥이 시위·과격표현 금지"

"과격표현은 명예훼손·모욕...정당한 권리행사 넘어" 법원, 박영수 특검 측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가 자신의 집 앞에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시위를 한 보수단체 대표들의 과격한 행위를 막아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재정)는 8일 박 특검이 장기정 자유연합 대표와 박찬성 반핵반금국민연합의 대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낸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장 대표 등은 박 특검의 아파트단지 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 박 특검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 방법으로 집회를 할 수 없다.

또 같은 장소에서 비방하는 내용으로 엠프, 스피커, 확성기 등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해 방송하거나 유인물, 피켓, 머리띠, 어깨띠나 현수막 등을 만들어 배포해서도 안 된다.

'박영수 죽어라' '모가지를 따 버려라' '때려잡자 박영수' '이 XXX은 몽둥이맛을 봐야 한다' '박영수는 목을 쳐야 한다'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총살시켜라'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한 사람당 1일 100만원씩 물어야 한다.

다만 단순히 박 특검과 검찰, 헌법재판소의 탄핵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표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

한 것이다.

재판부는 "시위에 이르게 된 경위, 시위 장소, 행위의 정도와 표현 내용 등을 종합하면 '박영수 죽어라'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라며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가처분을 구할 권리가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특검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 지속되면 그로 인해 떨어진 사회적 평가와 인식이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며 "시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장 대표 등의 태도 등을 감안하면 간접강제금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 등은 지난 2월24일과 26일 박 특검이 사는 아파트 앞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이제 말로 하면 안 된다"며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특검의 집 주소가 인터넷에 아파트 동·호수까지 공개되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박 특검의 신변을 위협하는 일부 극우세력들의 과격한 발언과 행동을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청년정치단체를 준비 중인 '청년당 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장 대표와 주 대표를 특수공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dhspeople@news1.kr

삼성 이재용 측 "특검 공소사실 모두 부인"... 무죄 주장

삼성 측 "특검, '공소장 일본주의 어겨'"

(서울=뉴스1) 윤수희, 성도현 기자 = 최순실씨(61) 일가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49) 등 삼성 관계자 5명이 특검의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9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삼성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특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향후 공판절차에서 다를 뜻을 밝혔다.

이날 삼성 측은 "특검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다"면서 특검의 공소사실 자체도 문제삼았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외에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등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삼성 측은 "특검이 공소장에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을 기재했다"면서 "이 사건이 전환사채 사건과 같은 취지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사실을 공소장에 적어넣어 특검이 일찍부터 피고인들 및 삼성그룹이 조직적, 불법적으로 이재용 승계작업 추진해온 것처럼 법원에 예단을 형성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어 삼성 측은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등 직접 인용 불가능한 대화를 사실처럼 재구성해 기재했다"면서 "이는 오로지 대통령과 이 부회장만 알고 있는 사실로 대통령 조사도 이뤄진 적 없고 이 부회장도 공소장 대화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특검이 증거조사 절차 없이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내부 서류와 관계자 진술을 인용했다는 점, 미래전략실을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를 대변하고 대관업무 창구 역할한다'고 하는 등의 공소장 내용도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삼성 측은 "특검은 예단이 생기게 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사실을 명확히 정리해 주지 않는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며 날을 세웠다.

ysh@news1.kr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로 호송되고 있다



2017년도 과기협 수학 경시대회 제 26회 뉴잉글랜드 수학 경시대회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가 4월 8일 MIT 에서 2017년 전미 수학 경시대회를 개최합니다. 뉴잉글랜드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실력발휘의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참가대상	뉴잉글랜드지역 4학년 ~ 11학년 학생
대회일시	2017년 4월 8일(토) 1:00PM - 5:00PM (1:00PM check-in 마감, 5:00PM 시상)
대회장소	MIT Building 54 Room 100 25 Ames St, Cambridge, MA 02139
참가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가비 : \$25 (온라인 등록) \$30 (현장 등록) 온라인 등록: www.ksea.org/nmsc/ 온라인 등록 마감: 3월 31일(금요일) 기타: (1)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동안 학부모님들을 위한 유익한 교육 관련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 온라인 등록자도 현장에서 check-in 하셔야 합니다.
행사문의	Email: contact@kseane.org 조진행(781-266-6990)



* 강연안내 *

- 학부모가 본 미국 대학 입시 (도삼주 박사)
- 미래의 수학교육 (Math Game House 강혜정 원장)
- MIT 학생

- 매년 약 2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큰 행사입니다. (전국규모 2,000명 이상)
- 재미과학기술자협회 홈페이지(www.ksea.org/nmsc/) 에서 미리 온라인 등록을 해주시면 행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온라인 등록 마감은 3월 31일 입니다.
- 1시30분에 학년별 시험장으로 이동하니 반드시 1시 이전에 오셔서 check-in 을 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최: 재미 과기협 뉴잉글랜드 지부, 재미 한인학교 뉴잉글랜드 지역 협의회, MIT 한인 대학원 학생회

Tufts Composers: Music Old and New 신곡 발표 및 전통 국악,무용 공연



1부: 터프츠 대학교 작곡 발표
가야금, 피리, 서양 악기

2부: 국악/전통 무용
오정희 가야금 병창
강은주 진도 북춤
김도연 가야금
이나연 피리, 탈춤
장동윤 장구



3월 14일 (화) 오후 8시
무료 입장

Granoff Music Center
Tufts University
20 Talbot Ave. Medford, MA



주최 터프츠 대학교

후원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William Glanton
978.394.2017



Vicky Xiao
617.480.6362

안녕하세요?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Opportunities를
찾으시는 손님들이나
파시기 원하시는 손님들은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Berkshire Hathaway
Home Services &
Commercial Division에서는
미주 각주에서 들어 오시는
큰 회사로 오시는 손님들을
직접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에만
2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저희 회사의 연결망에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백영주 올림



Allen Quinn
978.897.2781



이현주
401.935.3397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Kevin Curry
978.852.296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패츠, 드웨인 알렌 트레이드로 영입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자유 계약 시장이 열리기 직전에 전격적인 트레이드를 단행해 타이트엔드 드웨인 알렌을 영입했다. 패트리어츠는 알렌과 드래프트 6라운드 선택권을 얻었고, 대신에 콜츠는 패트리어츠로부터 드래프트 4라운드 선택권을 받았다.

약 1년 전 패트리어츠의 스타 타이트엔드 랍 그롱코스키는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연봉에 불만이 있는 듯한 메시지를 게재했다. 공교롭게도 그롱코스키의 트위터 직후에 콜츠는 알렌과 4년-2,94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

마치 중요 선수를 서둘러 붙잡으려 하는 듯한 모양새였다. 그리고 알렌이 패트리어츠로 트레이드 되면서 이제 그롱코스키와 알렌은 같은 유니폼을 입게 되었다.

알렌의 잔여 계약 내용은 2017년에 490만 달러, 2018년에 400만 달러, 2019년에 740만 달러다. 만약 패트리어츠가 마텔러스 베넷이 떠난 후 빈 자리를 위해 알렌을 영입했다면 적어도 연봉 면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인 트레이드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알렌의 트레이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베넷의 계약 연장:

알렌의 트레이드는 확정되었고, 베

넷은 아직 패트리어츠와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다. 베넷이 요구하는 연봉은 1년에 900만 달러 선이다. 알렌이 베넷의 몫을 대신할 수만 있다면, 베넷이 요구하는 연봉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알렌이 훨씬 경제적인 선택이다.

베넷은 분명 재능이 있고 팀에 활력을 불어 넣는 선수다. 베넷이 없었다면 패트리어츠의 수퍼볼 우승도 없었을 것이라는 말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단순히 숫자만 본다면 정규 시즌에 55개의 패스를 받고 701야드 전진, 7개의 터치다운을 성공시킨 베넷의 커리어가 대단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베넷은 주전 선수가 아닌 백업 선수로 패트리어츠에 들어왔고, 크고 작은 부상에도 결장 없이 전 경기에 출전했다는 것은 베넷의 가치를 한층 높여준다.

베넷은 수퍼볼 챔피언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계약 시장에서 베넷의 가치는 현재 타이트엔드 중 최고 수준이며, 패트리어츠는 그 정도로 많은 금액을 지불할 가능성이 낮다.

드래프트에서 타이트엔드 선택:

알렌이 패트리어츠에 합류하면서 패트리어츠의 53인 로스터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타이트엔드는 4명이 되었다. 물론 패트리어츠가 타이트엔드의 선수층을 보강하기 위해 드래프트에서



타이트엔드 드웨인 알렌이 트레이드를 통해 패트리어츠 유니폼을 입게 되었다

타이트엔드를 추가로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알렌의 계약이 유효한 2019년까지는 상위 라운드의 드래프트 선택권을 소모해가며 루키 타이트엔드를 선발할 필요는 없게 되었다.

올해 드래프트에는 최상위 타이트엔드가 3명 정도로 꼽힌다. 그리고 패트리어츠의 1라운드 선택권은 32번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우수한 타이트엔드가 남아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만

약에 패트리어츠가 드래프트 상위 라운드에서 타이트엔드를 선발한다면 그롱코스키가 패트리어츠를 떠날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한다.

그롱코스키에 대한 보험:

이번 오프시즌 패트리어츠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그롱코스키의 백업 타이트엔드를 영입하는 것이었다. 패트리어츠의 공격은 타이트엔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알렌을 영입한 것은 충분히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알렌은 리시버 타입의 타이트엔드가 아니라 블로킹에 특화된 타이트엔드다. 그렇지만 지난 시즌에 35개의 패스를 받아 406야드 전진, 6개의 터치다운을 성공시키며 리시버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jsi@bostonkorea.com

피츠버그 단장 "강정호 비자발급, 좀 더 시간 걸릴 듯"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음주행소니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미국으로 가는 데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닐 헌팅턴 피츠버그 단장은 8일 피츠버그 지역 라디오 'CBS 피츠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강정호의 취업비자 발급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지난 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음주행소니 사고를 내고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됐으나, 사안이 중대하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달 22일 첫 재판에서는 약식 기소 때와 같은 벌금 1500만원이 구형됐지만 선고 공판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징역형이 내려졌다. 이로 인해 강정호의 피츠버그 복귀에 걸림돌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단 현재로선 강정호의 시즌 개막 정상 합류는 불투명해졌다.

헌팅턴 단장은 "강정호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절차는 끝났다. 다음은 미국 정부의 차례"라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길 기다리고 있지만 그날그날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와 이민국에서 다루고 있는데 최대한 서두른다고 해도 비자 발급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스프링캠프와 시범 경기를 정상적으로 소화하지 못한 강정호는 개막 합류조차도 현재로선 불투명해졌다. 헌팅턴 단장은 당장 강정호의 공백을 메울 주전 3루수 구상을 계획 중이다.

헌팅턴 단장은 "조시 해리슨은 3루에서 좋은 수비 능력을 보여줬다. 데이빗 프리스도 3루를 볼 수 있다. 지난 시즌 초반 (강정호 대신) 잘해줬다"

고 말했다. 피츠버그는 일단 초반 강정호의 부재를 해리슨과 프리스를 통해 메운다는 구상이다.

그는 강정호의 초반 공백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헌팅턴 단장은 "강정호가 있었다면 3루와 함께 종종 조디 머서 자리인 유격수도 보게 하려고 했다"라며 "아쉽지만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alexci@news1.kr



음주행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메이저리거 강정호(피츠버그 파이어리츠)

박병호, WBC 미국 상대로 '결승타'

(서울=뉴스1) 정명의 기자 = 박병호(31·미네소타 트윈스)가 WBC 미국 대표팀을 상대로 결승타를 때려냈다.

박병호는 8일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애스 센추리링크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열린 WBC 미국 대표팀과의 평가전에 6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3타석 1타수 무안타 1볼넷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미네소타가 0-2로 뒤지던 2회말 박병호에게 첫 타석이 돌아왔다. 박병호는 1사 2루 찬스에서 앤드루 밀러를 상대로 볼넷을 얻어내 동점의 발판을 닦았다.

이어 미네소타는 제이슨 카스트

로와 조지 폴란코의 연속 적시타로 2-2 동점을 만들었다.

4회말 두 번째 타석은 아쉬움을 남겼다. 무사 1루에서 데이비드 로버트슨에게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났다.

그러나 박병호는 6회말 1사 1,3루에서 드루 리신스키에게 우익수 희생플라이를 때려 3-2 역전을 이끌었다. 이날 경기 결승타로 기록된 희생플라이였다.

경기는 그대로 미네소타의 3-2 승리로 끝났다. 미국 대표팀은 7안타 2득점으로 부진한 타격을 보였다

doctorj@news1.kr



미네소타 트윈스 박병호

POSPay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카드를 긁고 계십니까?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본손: Boston



돼지곰: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a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본손: 20% 절약
돼지곰: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a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thony's Greater Parish of Catholic Church

사순피정
3/10(금) 7PM-10PM
3/11(토) 10AM-4PM
지도신부: 이재규(베드로)
주제: 고통에 대한 인간의 생각
-음기를 중심으로

성목요일 (4/13)
8pm-주의 만찬미사

성금요일 (4/14)
3pm-십자가의 길
8pm-수난예절

성토요일 (4/15)
9pm-부활 성야미사

부활절 (4/16)
3pm-부활대축일 낮미사 및 세례성사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_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경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여 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고와 사랑의 피니막 (말 3:16)

주일예배 / 오후 6시 | 금요기도회 / 저녁 7시
송년 / 송년 / 찬양 / 광고부설회 / 청년부요청
Grace Bible Study / 수일 7시 | LIFE 모임 / 주일 10시

담당 목사 / 우시향

7 Clarendon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

보스턴 밀알 한인 장로교회
뉴잉글랜드노회(KAPC)

가르치고
전파하라
(마 4:23)

예배시간:
주일: 1부 9:30, 2부 11:00
금요일: 8:00

밀알한국학교 운영

담당목사: 박일종 목사

주소: 15 Alpha Rd,
Chelmsford MA 01824
전화: 978.501.9117
www.milal-church.org
Lexington에서 25분,
H-Mart에서 15분 거리

유치부: 임성진 목사
유년부: 임재승 목사
유스: David Moon 강도사
청년/EM: David Moon 강도사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 대학부요청: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당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9: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우스터한인학교: 월 9:30-11: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902.796.4488
http://www.kac.org

담당목사: 김현터
817.730.417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턴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의 나사렛에 따라 함께 하신 말씀 배우함이 무너져나갑니다.
그서함으로 무너져 사탄 사탄에게, 그로써로 무너져 교회를 약화시킵니다.
같은, 같은, 같은, 같은, 같은, 같은, 무너져서 멸망한 삶을 살아야합니다.
-반영을 준비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송년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30, 토 오전 7:30
영년예배 주일오후 12:30
속회예배 수-주일 속회별
유년예배 화,목 오후 5:00, 주일 오전 9:30
성령강화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6:50, 목 오후 9:30

비전교회
The pastor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esttown, MA 02472 Tel: 617.744.8587
www.growwithus.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fit UP SOLUTION

내외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와 2fit카드 프로그램, 각자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최적의 경쟁력까지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담당 비즈니스 개발팀 이선호
781.266.7245



HAPPY

해피돌상

고급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고풍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 고객을 더치는 최첨단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유아용품과 천기, 골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크라우저 앤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국제법 전문 로펌 Immigration Law/International Law/Customs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주재원 비자 (L-1)
- 취업이민 (EB-2, EB-3, EB-4)
- 투자이민 (EB-5)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미국 세관 CBP 압류재산 회수
- 단기연수원 비자 (H-3)
- 특가자 비자(O-1, P-1)
- 종교비자 (R-1)
- 투자비자 (E-2)
- 가족초청이민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wyer.com

Crouser & Suh PLLC

1309 Beacon S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Tel: 617.274.5723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생선가게(매타팬)에서 생선 판매 및 케시어 하실 분(풀타임) 구합니다.
T. 603-401-4986

SAT/SSAT/ACT/TOFEL 21년 전문지도
현직 고교 SAT/AP 영어교사
확실한 효과 보장 T. 781-392-8505

회계 직원을 구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육기관 에듀 보스톤에서 회계 직원을 구합니다.

- 회계학 전공자 (또는 관련 전공자, 경영, 경제)
- Quickbook 사용가능자 우대
- 엑셀 사용가능자
- 영어/한국어 필수
- 보수 : \$40K
- 문의 : 617-254-1117, myung@eduboston.com
- 지원을 하실 분은 위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시시오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Natick 지역 세탁소. 대상 \$600K, 매매가 \$600K, Owner Financing 가능
T. 617-943-3502

4989 부동산 매각하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메사추세츠주 태권도 협회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MSTA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고문단장: 안 남 열 고문: 이 강 원

고문: 구 정 희 고문: 조 형 구

회장: 정 제 형 부회장: 허 훈 부회장: 리치안 사무총장: 전 명 호 회계: 김 희 용

웹사이트: 강 창 남
시범단장: 홍 순 우
경기위원장: 강 민 석
심판위원장: Michael Agosti
홍보부장: Maureen Maher-Killelea

www.masta.us

2016년 메사추세츠 주 태권도 협회원 가입현황
*단체회원(\$200/년): 정제형, 허훈, 리치안, 홍순우, 김희용, 전명호, 강민석
*정회원(\$100/년): 강창남

370 Boston Tpk., Shrewsbury, MA 01545
Phone 508-792-5534 . FAX 508-767-0113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견인	617-338-2352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제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메이역	617-445-7958
보스톤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톤수도	617-989-7000
보스톤시청	617-635-4500
보스톤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이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리즘/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펠러버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선교 (Verizon)	617-555-1515
텍스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결혼기정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결혼기정선교연합회(NE)	603-889-8201
뉴잉글랜드교동맹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인트앤서니	508-826-5270
이복노도도인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동맹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약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대학교동창회	802-734-2521
성균관대동창회	508-541-6969
영광중고등학교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고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리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203-861-1134
나사렛사람의교회	603-430-2929
내슈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동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250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양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781-275-1763
보스톤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장로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침례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세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69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올스톤교회	508-799-4488
우스타장로교회	781-354-1843
워싱턴프린더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총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서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	--------------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머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팡사이딩 청문	617-999-9616
이놀드 건축	617-833-1360
파인원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	--------------

공인 회계사

김영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대교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에이저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에어컨/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649-6513
운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주문)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뷰티톡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달궁방	617-437-0378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508-734-0446
웨스트메인 헤어	508-768-7675
케이티 헤어디자인	978-772-7886
프로페셔널 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킨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희 헤어(Bi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 살롱	808-879-7777
MIN-AH MAKEUP	508-617-7122
Scotty's of Lexington	718-861-1277

대상 대여/폐백

해피대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셀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하버드뱅크(이재용)	617-421-2282
한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우진 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함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추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톤컨스테카카이로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주 치과	860-623-2601
한은애정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완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엑스	617-871-1482
켄지스아치과	617-471-2184
손영권치과	978-459-0594
프록스팩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정치과	781-894-1127
아이콘덴탈	

"몸의 한쪽에만 극심한 통증과 발진이 생겼어요~"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 "대상포진, 몸의 한쪽에만 통증과 감각이상 발생 후 그 부위를 따라 발진 나타나"

이번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극심한 통증으로 유명한 대상포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대상포진은 피부발진이 나타나기 전에는 다른 병으로 오인되기 쉬워 조기진단 및 치료가 쉽지 않다. 따라서 몸의 한쪽에서만 원인을 통증을 발생하고, 그 부위를 가볍게 만질 때 반대편과는 달리 베이거나 찌르는 듯한 감각 이상이 동반된다면, 대상포진이 생긴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 대상포진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 바이러스가 신경을 따라 퍼져나가는 대상포진에 걸리면 그 신경이 지나가는 피부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발생한다. 대상포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몸통에서는 통증 발생부위가 갈비뼈를 따라 분포하는데, 이것이 마치 허리띠가 몸통을 감싸고 돌아가는 모양과 비슷하기 때문에 대상포진(帶狀疱疹)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동시에 감각이상이 나타나 가볍게 스치는 자극에도 베이는 듯한 느낌에 화들짝 놀라게 된다. 특이한 점은 왼쪽 아니면 오른쪽, 이렇게 몸의 한쪽에서만 통증과 감각이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면 피부에 붉은 발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위로 하루 이틀 사이에 물집이 생기게 된다.

◎ 치료제도 아닌데 진통제를 계속 먹어야 하나요? : 대상포진의 초기 일주일 동안에는 항바이러스제를 먹거나 주사를 맞으면서 통증조절을 위해 진



통제를 사용한다. 스테로이드를 함께 복용하면 초기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 만일 통증이 극심한 경우에는 신경 차단술(nerve block)을 시행하기도 한다. 진통제를 먹지 않고 참는 것은 통증 완화나 대상포진 후 신경통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적절한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 약을 먹는데도 왜 물집이 더 생기나요? : 대상포진 약을 먹기 시작해도 며칠 동안은 피부에 물집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바이러스에 심하게 감염된 피부세포가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2~3일을 넘겨서도 물집이 늘어난다면 진단이 잘못되었거나 약의 용량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다시 확인해봐야 한다.

◎ 대상포진 후 신경통, 예방할 수 있나요? : 대상포진의 피부 발진 발생 72시간 내에 항바이러스제와 스테로이드 제제를 경구 투여하면 통증과 피부 발진의 치료 기간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빈도 및 통증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대상포진 급성기에 적극적인 중재치료를 시행하게 되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의 진행을 줄일 수 있다.

◎ 신경 차단술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은가요? : 조기 중재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이미 발생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치료하는 것보다 통증의 만성화를 예방할 수 있다. 피부발진의 퍼짐 정도가 지배분절의 1/4 이상이거나 발진과 함께 수포, 괴사성 궤양 혹은 피부감염 등이 동반된 경우, 통증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와 지배분절의 명백한 감각 둔화 및 이질통을 동반하는 경우 중재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외에도 50세 이상인 환자의 경우에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행될 고위험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기 중재치료가 필요하

다.

◎ 대상포진 후 신경통 환자의 치료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경우 전형적인 신경병증성 통증양상을 보이는 질환으로 삼환계 항우울제와 항경련제를 중심으로 하는 약물요법을 주 치료방식으로 삼고, 신경 차단술은 보조적인 치료법으로 이용하게 된다. 약물요법의 경우 환자의 통증 호전의 반응을 살펴가며 용량 조절을 하게 되고, 일정 치료 후 통증의 호전을 보이는 경우 점진적으로 용량 감량을 하게 된다. 신경 차단술 시행에 따른 통증 경감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주 1회 정도로 2~3개월간 치료를 시행한다. 신경 차단술에 호전이 없는 경우 박동성 고주파치료 혹은 교감신경절 파괴술(신경과괴제, 고주파열 응고술)을 시행하게 되며, 이러한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 척수자극기 삽입술 또는 말초신경자극기 삽입술 등을 고려하게 된다.

◎ 환자들의 치료 예후는 어떤가요? :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만성 신경통증의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경구요법 뿐만 아니라 중재치료를 통한 적극적인 치료로 통증의 정도 및 기간을 감소시켜야만 치성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상포진 급성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한 경우 1년 이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는 없었다.



"카이로프랙틱이란?" : 우리 몸은 남녀노소 모두 31쌍의 척추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뇌로부터 이 신호를 통해 신호를 몸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전달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충격, 과로, 교통사고나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척추가 어긋나게 되면서 척추신경 압박 및 염痛으로 뇌로부터의 신호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우리 몸에 통증과 같은 이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척추의 어긋난 곳을 정확하게 찾아 가장 안전하게 바로잡는 것이 바로 카이로프랙틱입니다.



- 원장 : Dr. 유정호, D.C.**
(Dr. Jeongho Yoo, D.C.)
- Graduated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Seminar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Methodology Institute
 - Certified International Board of Extremity Chiropractors
 - 한양대학교 졸업 및 ROTC 47기
 - Active license in MA(#3524)

- 진료과목**
- 척추계통 : 목 / 목 / 허리 / 골반 통풍, 디스크 질환
 - 사지계통 : 어깨, 무릎, 손목, 발목, 턱관절 통증
 - 신경/순환 계통 : 손발 저림, 좌골신경통, 두통, 알러지, 소화불량
 - 교통/직장/운동 사고 :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후유증 해소
 - 어린이/학생/성인 자세 관련 통풍 및 척추측만 교정

개인기밀 특별

• 카이로프랙틱 상담
• 당일 척추 평가
(20000~30000)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요보험: 삼성생명PPO, 현대캐피탈, 한국/유료보험/이동자/교통사고 보험 등 다수

진료시간

월-금(M-F) : 9am-5pm
토(Sat) : 10am-12pm
일(Sun) : Closed



'맨투맨' 박해진 · 박성웅 · 김민정 포스터 공개.. '기대 UP'

(서울=뉴스1스타) 황미현 기자 = '맨투맨' 주인공들의 새 포스터가 공개, 기대감을 높였다.

8일 JTBC 새 금토드라마 '맨투맨(MAN x MAN)' (연출 이창민, 극본 김원석, 제작 드라마하우스, 마운틴 무브먼트 스토리)의 세 주인공 박해진, 박성웅, 김민정의 캐릭터 포스터가 첫 공개됐다.

박해진의 단독 포스터에는 흑백 화면에 "난 나도 안 믿어요"란 문구와 함께 '맨투맨' 속 '천의 얼굴 고스트 요원 김설우'로 활약할 박해진의 모습이 담겨 있다.

깔끔하게 넘긴 짧은 헤어에 블랙 슈트를 입고 살포시 총을 든 채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 그의 차가운 시선이 위협하고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더하며 극중 어떠한 모습으로 대변할지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이어진 포스터에서는 흑백 명암이 대비를 이루는 가운데 금방이라도 "나는 제게 안해? 내가 보기에 내가 제일 위험한데"를 외칠 것 같은 박성웅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 강

렬한 인상을 남긴다. 박성웅은 극중 배드가이 한류스타 여운광으로 분해 아재파탈의 매력을 예고하고 있다.

끝으로 "우리 오빠 꽃보다 아름다워!"라며 여운광의 팬심 절정 특급 매니저 차도하로 나설 김민정은 포스터 속 짧은 처피뱅 스타일로 옛날 외모를 뽐냄과 동시에 다부지고 당찬 표정으로 열혈 걸크러시 매력을 드러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두 남자 사이에서의 그녀의 반전 활약에도 기대를 불러 모은다.

한편, '맨투맨(MAN X MAN)'은 초특급 한류스타의 경호원이 되는 다재다능하고 미스터리한 고스트 요원과 그를 둘러싼 숨은 맨(Man)들의 활약을 그린 드라마로 한류스타 박해진과 '태양의 후예'의 김원석 작가, '리멤버 아들의 전쟁' 이창민 PD의 컬래버레이션으로 2017년 상반기 또 하나의 최고의 기대작으로 주목 받고 있다.

JTBC 금토드라마 '힘센여자 도봉순' 후속으로 오는 4월 21일 첫 방송된다. hmh1@news1.kr



'한끼줍쇼' 강호동 vs 추성훈, 팔씨름 대결 승자는

(서울=뉴스1스타) 강희정 기자 = 강호동과 추성훈의 팔씨름 빅매치가 성사됐다.

최근 진행된 JTBC '한끼줍쇼' 녹화에는 밥동무로 추성훈과 광희가 참여했다. 두 사람은 규동형제와 함께 상도동에서 한 끼에 도전했다.

이날 강호동, 추성훈은 세 번째 팔씨름 대결을 펼쳤다. 두 사람은 지난 2008년 '무릎팍도사'에서 팔씨름 대결을 펼쳐 추성훈이 승리를 거뒀었고, '아는 형님'에서 펼쳐진 재대결에서는 치열한 접전 끝에 무승부를 기록한 바 있다.

이날 추성훈은 강호동과의 진검승부를 다시 한 번 펼쳐보고 싶다는 의사를 비쳤다. 그

러나 강호동은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운 듯 "우리 둘의 팔씨름은 영원히 마음속에 뒤야 한다"라며 은근슬쩍 피하려 했다. 하지만 "지난번에 성훈 형이 봐줬다더라"는 광희의 말에 자극을 받아 강호동은 몸을 풀기 시작했다.

오프닝 장소 한복판에서 둘의 팔씨름이 시작됐고, 테이블 전체가 두 사람의 힘에 들릴 정도로 승패를 알 수 없는 대결이 진행됐다. 전력을 쏟은 역대급 빅매치를 마친 추성훈은 "힘이 진짜 세다"라며 강호동에게 새삼 감탄했다.

hjk0706@news1.kr



'김과장' X '경리부 어벤져스' 사이다 전개의 일등공신들

(서울=뉴스1스타) 김나희 기자 = '김과장'의 '경리부 어벤져스'가 새로운 '사이다의 축'으로 거듭나고 있다.

최근 방송 중인 KBS2 수목드라마 '김과장'(극본 박재범/연출 이재훈 최윤석)에서는 남궁민, 남상미, 김원해, 김강현, 조현식, 류혜린, 김선호와 재벌 회장 아들이서 평사원으로 들어오게 된 동하까지, 다시 합체한 '경리부 어벤져스'의 팀워크가 시선을 모으고 있다.

'경리부 해체'라는 최악의 위기를 벗어나 한자리에 모인 '경리부 어벤져스'가 서울(이준호 분)에 대해 복수를 결심한 김성룡(남궁민 분)과 함께 또 어떤 사이다 행보를 터트리게 될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경리부 어벤져스'는 '뽕땅대가'에서 대표에게 받은 돈을 경리부 직원들과 나눌 정도로 의인이 된 남궁민을 중심으로 개성 넘치는 의기투합을 이뤄내고 있다.

우선 정의감이 넘치고 푹 부러지는 윤하경 대리 역의 남상미는 김과장과 러닝메이트를 이루며 활약을 펼치고 있다. 윤하경은 김과장과 관련된 일은 물론, 경리부 일까지 당차고 소신 있게 정리 중이다. 그는 때론 조근조근하게 다독이고 때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으며 모두를 아우르고 있다.

김원해는 기러기 아빠로 사느라 이제는 자리 사수가 제일 큰 목표가 돼버린 추남호 부장을 맡아 현실감 돋는 생활 연기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때면 코믹한 말투로 웃음을 안기던 그는 "먹고 살기에 급급해 구겨진 사명감과 자존심, 자신감을 김과장 때문에 찾게 됐다"며 경리부 직원들을 설득해 감동을 안겼다.

김강현은 특유의 독특한 목소리로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이재준 주임 역으로 초반 김과장에게 일일이 맞대응하며 갈등 구조를 이끌었다. 사사건건 김과장에게 맞서는 이재준을 '썩썩'이라 부르며 못마땅해 하던 흥가은(정혜성 분)이 몰래

순가락 가격을 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추남호 부장의 설득 이후 김과장과 경리부에 녹아들고 있다.

커다란 덩치로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원기욱 역의 조현식은 TQ택배에서 부당 해고를 당한 아버지 원남철이 증언을 반복하는 바람에 '회생안'이 실패로 돌아가자, 미안한 마음에 사표까지 냈던 상황. 하지만 김과장의 설득과 경리부 직원들의 따뜻한 격려 속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가끔 한 번씩 하고 싶은 말을 내놓던 빙희진 역의 류혜린은 거침없는 행보로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경리부가 해체돼 총무부로 배치됐던 빙희진은 산더미 같은 서류를 들고 와 처리해달라던 총무부 직원에게 사이다 대사를 날리는가 하면, 식당에서 밥을 먹던 회계부 주선(심영은 분)이 거들먹거리자 머리끄덩이를 잡고 한판 붙는 화끈한 면모를 보였다.

철학과 출신 모범생 선상태 역의 김선호는 바가지 머리에 꺼벙하고 어눌한 말투, 결핍하면 눈물을 흘리던 나약한 성품을 드러냈다. 하지만 김과장을 가장 먼저 좋아하고 따랐던 선상태는 경리부 해체 이후 윤리경영실에 배치, 나가식 나희용(김재화 분)의 말투를 눈앞에서 따라 하며 나가식을 당황시키는 등 엉뚱함을 증명했다.

여기에 안하무인 재벌회장 아들이서 경리부 막내가 된 박명석 역을 맡은 동하는 연일 웃음을 선사, 경리부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김과장에게 팔 비틀기를 당한 이후 김성룡 앞에서만 서면 '졸보'로 폼짝 못하는 박명석이 경리부에서 김과장과 함께 지내는 아이러니한 처지가 된 것. 예전 부분부장 박명석에게 납작 엎드리던 경리부 직원들은 "어려워하지 말라"는 박명석의 말에 "우리 막동이"라며 뱅글 반말을 하고, 박명석은 여전히 김과장의 눈치를 보는 모습으로 유쾌한 사이다 웃음을 안기고 있다.

nahee126@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7년 2월 27일 ~ 2017년 3월 5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1	일일연속극(빛나라은수)	26.7%
2	MBC	주말드라마(불어라미풍아)	26.5%
3	SBS	월화드라마(피고인)	23.1%
4	KBS2	주말연속극(아버지가이상해)	22.9%
5	KBS2	일일드라마(다시첫사랑)	21.4%
6	KBS2	수목드라마(김과장)	18.4%
7	KBS1	KBS9시뉴스	16.2%
8	SBS	주말드라마(우리갑순이)	15.5%
9	SBS	K팝스타더라스트찬스	14.7%
10	KBS2	해피선데이	13.7%

Tbo Play 주간시청률

1	KBS2	일일드라마(다시첫사랑)
2	KBS2	TV소설(그 여자의 바다)
3	KBS1	일일연속극(빛나라은수)
4	SBS	일일드라마(사랑은방울방울)
5	MBC	일일연속극(행복을 주는 사람)
6	SBS	주말드라마(우리갑순이)
7	SBS	월화드라마(피고인)
8	MBC	일일특별기획(황금 주머니)
9	MBC	월화특별기획(역적백성을훔친도적)
10	KBS2	수목드라마(김과장)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KNOCK KNOCK	트와이스
02	Fine	태연
03	Rookie	레드벨벳
04	YESTERDAY	블락비
05	비가와 (Rain)	소유, 백현
06	좋다고 말해	볼빨간사춘기
07	봄날	방탄소년단
08	노래	Zion.T
09	오랜 날 오랜 밤	악동뮤지션
10	오빠야	신현희와김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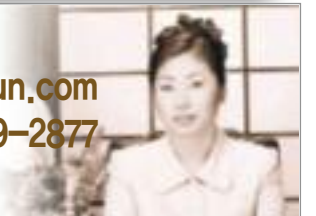
숫자 퍼즐 (Sudoku)

	2	7		4		8		
9	6	3			8		5	
				5	2			
	8	9				5		
1								8
		4				6	1	
			1	7				
	4		9			3	7	5
		5		8		1	6	

3월 12일 - 3월 18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는</p> <p>●운수:여기서 멈춰야 하는지 아니면 더 가야 하나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면 지금까지도 빨리 가던 길을 멈추고 새로운 판을 짜야 합니다. ●금전: 돈은 들어오나 나가는 것이 많으니 모으기가 어렵겠습니다. ●애정: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는 격이 되기 쉽습니다. 당장은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5, 18일 길일. 12, 17일 주의.</p>	<p>소띠 꼼꼼히 분석하고 따져보아야</p> <p>●운수: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잡고 있으면 힘이 들지만 손에서 내려놓는 순간에 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금전:전혀 조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의 흐름을 꼼꼼히 분석하고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애정:모든 것을 다 털어 놓는다고 해서 시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롭게 생긴 불안감으로 밤잠을 못 이룰 수 있습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3, 14일 길일. 12, 18일 주의.</p>	<p>범띠 자신감이 샘솟는</p> <p>●운수:머리가 맑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무엇이든 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샘솟는 때입니다. ●금전: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합니다. 큰 이득이 될 수 있는 고급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애정:마음을 연 솔직한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서로 간에 알게 모르게 쌓였던 장벽을 한 순간에 다 허물어트릴 수 있을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2, 17일 길일. 13, 16일 주의.</p>
<p>토끼띠 철저히 확인하고</p> <p>●운수:상황을 너무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클 수 있으니 철저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금전: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의 돈은 용동이 될 것입니다. ●애정:현재진행중인 상대와 새롭게 만남 사람과의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결정해야 합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2, 13일 길일. 14, 18일 주의.</p>	<p>용띠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p> <p>●운수:갑자기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약속은 잡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막연히 어떻게 될 것인지 믿고 기다리지 말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애정: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와 정반대의 생각을 갖거나 반대편에 서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88, 76, 64, 52, 40, 28년생은 14, 16일 길일. 12, 15일 주의.</p>	<p>뱀띠 아주 중요한 기로에</p> <p>●운수: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금전:한다고 했는데 노력한 것에 비해서 결과가 적어 적잖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이번만 있는 것이 아니니 다음을 기약하고 용기를 내세요. ●애정:스스로 불행하다 생각하면 불행이 꼬리를 물고 따라 다닙니다. 빨리 생각을 바꿔보세요. 89, 77, 65, 53, 41, 29년생은 15, 18일 길일. 12, 16일 주의.</p>
<p>말띠 지금은 때가 아니니</p> <p>●운수:함께 일하는 사람과의 갈등으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 참고 지나가야 합니다. ●금전:실제나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머릿속의 생각이나 이론만으로는 통하지 않으니 직접 부딪쳐서 얻는 산 경험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애정:정작 중요한 것은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2, 16일 길일. 14, 17일 주의.</p>	<p>양띠 귀를 활짝 열어두어야</p> <p>●운수: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귀를 활짝 열어두어야 하겠습니다. ●금전:원하던 것을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 구입할 계획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노릴 만합니다. ●애정:사랑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미망하고 좋은 상대를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드디어 인연의 짝이 나타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3, 17일 길일. 12, 15일 주의.</p>	<p>원숭이띠 삶에 밀거름이 된다는 것을</p> <p>●운수:상황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으로만 보는 것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금전:이런저런 제의가 들어오니 생각이 많아집니다. 동업이나 사업투자에 대한 제의도 들어옵니다. ●애정:좀 더 신경 쓰도록 하세요.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자식을 빛나게 하고 자식의 삶에 밀거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4, 18일 길일. 13, 16일 주의.</p>
<p>닭띠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p> <p>●운수:무작정 답을 기다리고 있자니 답답해집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 되는 때입니다. ●금전: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머릿속으로 계산한 것과 돌아오는 결과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애정: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때입니다. 오랜 세월 참았던 인내심이 바닥이 드러나고 한계점에 다다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5, 18일 길일. 14, 17일 주의.</p>	<p>개띠 가물에 단비가 내리는</p> <p>●운수:이렇까 저렇까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결정하고 나면 몸도 마음도 편해지고 가벼워집니다. ●금전:가물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절실하게 필요한 때에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끌어오던 매매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애정: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상대에게 끌리는 감정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6, 17일 길일. 15, 18일 주의.</p>	<p>돼지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니</p> <p>●운수:소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함께 의논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혼자서 생각하는 것보다 둘이서 의논하면 더 좋은 답을 얻게 됩니다. ●금전:금전운이 좋은 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순조롭게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애정: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이 훌훌 분해되는 때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니 관계도 좋아집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4, 17일 길일. 16, 18일 주의.</p>

'해투3' 측 "15주년 기념해 '프렌즈' 특집

(서울=뉴스1스타) 김나희 기자 = '해피투게더' 15주년 특집 '레전드 리턴즈' 3부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오는 9일 밤 11시10분 방송되는 KBS2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에서는 '레전드 리턴즈' 특집으로 꾸며지는 가운데 3부작 중 첫 번째 순서인 '프렌즈 리턴즈' 편이 10년 만에 안방극장에 돌아온다.

이날 방송에서는 '해피투게더'의 MC로 맹활약하고 있는 전현무와 조세호의 초등학교 친구를 찾으며 다시 봐도 재밌는 레전드 예능의 클래스를 확인케 할 예정이다. 더욱이 과거 '프렌즈'의 MC를 맡았던 유진이 특별 출연해 유재석과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고, 헨리가 전현무 팀의 반장으로 분해 '프렌즈 리턴즈'를 지원 사격한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출연진들은 10년 만에 돌아온 '프렌즈'에 대해 남다른 감회를 드러내 시선을 모았다. 특히 유진은 실제로 과거에 '프렌즈'를 통해 친구들을 찾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저도 친구들을 찾은 적이 있는데 아직도 종종 연락을 하고 지낸다"고 밝혀 본격적인 친구 찾기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들였다.

무엇보다 이날 '프렌즈 리턴즈'는 전현무와 조세호의 졸업사진, 생활 기록부 등의 공개부터 두 사람의 과거를 터는 '빠꾸기는 알고 있다'까지, '프렌즈'의 대표 코너들을 완벽히 재현해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는 전언.

이에 대해 '해피투게더' 제작진

은 "10년 만에 진행되는 녹화임에도 현장에서는 어색함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웃음과 가슴 뭉클한 감동이 이어졌다. 시청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레전드 예능의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프렌즈 리턴즈'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nahee126@news1.kr



트와이스, 활동은 끝나도 기록은 계속된다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그룹 트와이스가 3주 간의 'KNOCK KNOCK' 활동을 마친다.

트와이스는 오는 12일 SBS '인기가요'에서 굿바이 무대를 갖고 이번 활동을 마무리한다.

'KNOCK KNOCK'은 멜론, 엠넷, 네이버 뮤직 등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2주 동안 주간 차트 1위에 올랐다. 트와이스는 여전히 실시간 차트 1위를 지키면서 음원 강자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TWICEcoaster : LANE 2'는 스페셜 앨범임에도 8일 가온 차트 기준 약 2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음반 면에서도 두드러지는 성과를 보였다.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에서는 'TT'로 세웠던 아이돌 최단 기간 1000만 뷰, 4000만뷰 돌파의 기록을 자체 경신했다. 5000만뷰를 목전에 두면서 또 한번의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트와이스는 최근 'TT' 뮤직비디오로 싸이클 제외 K-POP 아이돌 중 최단 기간 1억5000만뷰 달성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KNOCK KNOCK'으로 이 기록을 갱신할 수도 있을지 주목된다.

ppbn@news1.kr

'라디오스타' 지상렬, 염경환과 불화설 뒷 이야기 공개

(서울=뉴스1스타) 강희정 기자 = 지상렬이 과거 개그듀오 클놈으로 함께 활동했던 염경환과의 불화설 뒷이야기를 공개한다. 과거 김구라가 '(지상렬이)염경환이 운영하는 냉면 가게에 방문하지 않아 그가 섭섭해했다'는 폭로에 대한 진실을 밝

힐 예정이다.

최근 진행된 MBC '라디오스타' 녹화에는 남희석 지상렬 조세호 남창희가 참여했다. 이날 지상렬은 염경환과 불화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 4MC의 쏟아지는 질문에 사실만을 답했고, 염경환과의 마지막 통화 시

점까지 밝혔다고 해 기대를 높인다.

특히 과거 김구라가 폭로한, 염경환이 운영하는 냉면 가게에 지상렬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진실도 밝혀진다.

hjk0706@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형,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량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배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adisaction 10 min / Newton 20 min
E-mail: eunautobody@yahoo.com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EA & NY) • BOAAB • GDT • LMS AP
MA REALTOR® • E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백사우세초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법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보스턴과 서버브 지역에서 ESL과 스킬 빌딩 프로그램

888.848.8260
INTERNATIONAL@CSINOW.COM



CSI 는 모든 타임의 인터내셔널 학생 등록을 환영합니다

- 미국의 대학 또는 다른 언어 학교에서 트랜스퍼 가능
- 다른 주에서 일리노이 주 학교로 바꿀 수 있습니다
- 가족이나 친구들이 한국에서 직접 신청 가능

자금 CSI로트랜스피(Transfer) 과시고, \$100트랜스피로 할인 받으세요!

PROMO CODE
NPBK3

Use Promo Code to Apply Online CSINOW.EDU
CSINOW.EDU에서신청하실때 프로모션 코드 NPBK3를사용하십시오.

\$100 OFF*
Transfer Fee

*Promotional offer valid only for students who enroll and pay classes for spring 2017 quarter.

<p>English as Second Language (ESL) 33 주/ 강의 + 랩 초급 ESL 중급 ESL 고급 ESL</p> <p>\$3,900 Per* Year</p> <p><small>*기타에, 교육비용 지불하기 이전에 교육비가 할인 됩니다.</small></p>	<p>아카데미 Academic ESL 33 주/ 강의 + 랩 글쓰기 문학 대화</p> <p>\$4,200 Per* Year</p> <p><small>*기타에, 교육비용 지불하기 이전에 교육비가 할인 됩니다.</small></p>	<p>스킬 빌딩 Skill Building 14 주/ 강의 + 학외연수 고객 서비스 전문 서비스직 전문 비서직 스몰 비즈니스 관리 세일 & 마케팅 전문</p> <p>\$5,100 Per* Year</p> <p><small>*기타에, 교육비용 지불하기 이전에 교육비가 할인 됩니다.</small></p>
--	--	---



Computer Systems Institute (CSI)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Massachusett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licensed by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Division of Professional Vocations, Office of Adult,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CSI is accredited by the Accrediting Council for Independent Colleges and Schools to award certificates. ACCI is recognized by the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For more on accreditation and why it matters for you, check out the Accreditation page at <http://www.csinow.edu/csi-advantages/accreditation/>. CSI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s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Students enrolled in ESL programs are not eligible for extended practical training (EPT) or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work authorization. Programs vary by location. For more information about program graduation rate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at www.csinow.edu/about-csinow-customer-information - 1 Month (2015/10/17 ~ 4/16)

신영의 **세상 스케치**

587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 시편을 읽고 또 읽으며 며칠을 깊은 생각에 머물러 있다. 그레 시인의 가슴이 아니더라도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삶은 생각처럼 그리 만만치 않음을 깨닫는 오늘이다. 서로 부딪히면서 스치는 인연에 웃음과 울음을 내고 생채기도 그어가며 그 상처를 보듬으면서 그렇게 서로 치유하며 사는가 싶다. 이 세상에서 홀로이지 않은 것이, 외롭지 않은 것이 그 무엇 하나라도 있을까. 서로 마주 보고 있어도 외롭고 고독한 것은 애써 변명하지만, 세상과 마주할수록 사람과 마주할수록 더욱 깊이 사무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지병인가 싶다.

사람으로 상처받고 고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또한 그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 속에 있는 따뜻한 사랑이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이 세상 네가 있어 내가 있고, 내가 있어 네가 있는 우리의 세상인 까닭이다. 그래서 살 만한 세상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이 아닐까 싶다. 저 들꽃을 보면 마음이 평온해져 오지 않는가.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않고 꺾여질 듯

꺾여지지 않고 바람을 타는 저 들꽃을 보면 행복해지지 않던가. 흔드는 바람을 탓하지 않고 바람과 함께 흔들리는 저 들꽃을 보면.

삶이 버겁다고 느껴질 때는 언제나처럼 하늘을 본다. 그 무엇과도 경계 짓지 않아 좋은 파란 하늘과 하얀 뭉게구름을 보면 마음의 평안을 찾는다. 내 곁에 있는 것들도 모두가 하늘을 향해 얼굴을 마주한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도 들꽃과 들풀도 햇살 가득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든다. 자연과 함께 마음을 마주하면 속에 가득 찬 욕심이 조금씩 녹아내린다. 나도 이 커다란 우주 안에서 하나의 작은 자연임을 깨닫는 순간 행복이 저절로 몰려온다. 굳이 그 어떤 종교를 들추지 않아도 저절로 창조주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절로 흘러나온다.

살면서 하루쯤은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다면, 세상과 바쁘게 걸어온 험퍽거리는 숨을 곁 따라 고를 수 있을 것이다. 계절과 계절의 샅길에서 바쁘게 옮기던 발걸음의 보폭을 천천히 옮기며 무심히 지나치던 자연과 마주해 보자. 들 가는 들풀과 들꽃과 파란 하늘과 흰 구름 그리고 바람 그 바람을

타며 즐기는 나뭇잎들을 가만히 만나보자. 잊고 지내던 그들의 얘기들이 바람을 타고 꽃가에 하나 둘 들려오리라. 그동안 듣지 못하고 잊고 살았던 내 마음 깊은 곳에서의 그리움의 언어들이 가슴으로부터 하나 둘 올라오리라. 내 가슴에서 오래도록 웅크리고 있던 내 그리움의 언어들이 하나 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참으로 고운 시어에 눈물이 고인다. 아, 시인은 어찌 저리도 맑디맑은 영혼을 노래했을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흔들리는 들꽃을 얼마를 보았던가. 저 흔들리는 꽃에서 바람을 보고 비구름을 보았을 시인의 맑은 영혼이 가슴 속을 파고든다. 그레 피고 지는 꽃을 보면 우리네 삶과 어찌나 닮았던지 가끔 들꽃과 들풀과 마주하면 인생의 긴 여정을 느끼게 된다. 땅의 기운과 하늘의 소리로 들꽃과 들풀은 욕심부리지 않아도 잘 자라 꽃피우고 열매 맺는데 어찌 이리도 사람만이 안달하고 복닥거리며 사는가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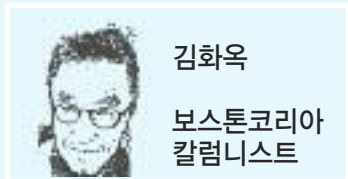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어찌 이리도 사유 깊은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레 사랑이란 이처럼 가슴 아파 견

딜 수 없어 죽을 것만 같은 것이리라. 그래도 죽지 못하고 살아 또 마주하는 삶이 인생이 아니겠는가. 사랑이란 보내는 가슴이나 남아 있는 가슴이나 떠나는 가슴이나 모두가 아픈 것이다. 살면서 가슴 한편에 시린 사랑 하나쯤 남겨두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시린 가슴 다독이며 가다 보면 또 다른 사랑이 찾아 오고 그렇게 흔들리면서 가다 보면 문득문득 지난 사랑이 그리워지는 것이 사람일 게다.

"짓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모두가 행복을 원하고 달라고 한다. 도대체 행복이란 것이 무엇이기에 모두가 원하는 것일까. 행복의 색깔은, 모양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제는 인생이란 것이 어떤 빛깔인지를 어렵פות이 알아간다. 그 어떤 삶일지라도 평범한 삶이란 어렵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다. 내가 원하던 원치않던 간에 느닷없이 들이닥치는 삶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다. 삶은 그래서 슬픔도 행복도 따로이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삶은 그저 사는 것이다. 그 빛깔이, 색깔이, 모양이 어떻든 간에 자기가 누린 만큼의 것이란 생각을 한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우리 송이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아이를 안고, 메고 공항에 마중을 나갔다. 아내와 나는 은근히 그들 부부의 칭찬을 듣고 싶었다. 그런데, 아내 친구의 첫 마디. '모~웃 생겼네.' 아내의 얼굴엔 당황하는 기색이 스쳐갔다. 내 얼굴도 벌게졌을 것이다. 아내와 내 눈에는 마냥 귀엽고, 잘 생긴 아이였으니 말이다. 그 즈음에 찍은 아이사진이 남아 있다. 다시 들여다 볼적에, 친구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 강호동과 형제라 한다면 속아 넘어갈 모습이다. 연예인 강호동을 미남이라 말하지 않는다. 그는 건강해 장군감이라 해야 옳다.

이십여 년 가까이 세월이 갔다. 아이가 집을 떠났다. 우리 부부는 이제 아이를 다시 갖고 싶었다. 성경에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아내도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아니다. 궁리 끝에 강아지를 입양入養했다. 게다가 딸이다. 아내와 내 눈에는 거의 천상의 선녀에 가까운 새끼 강아지인 게다. 아내의 자랑은 끝이 없다. '이만큼 이쁜 애는 아직 본적이 없다.' '애가 아무래도 천재인 것 같다.' 심지어 사진을 받아 본 내 아이도 한마디 했다. '예쁘네~에'. 내 눈에도 한쪽 눈탱이가 검은 것이 유별나게 귀여웠다. 하는 행동마저 미쁘기 짝이 없는 거다. 당연한 듯 아내는 장모님께

게 사진을 보냈다. 아내가 전해준 장모님의 평판. '뭐 그런 못난이를 입양했느냐.' 따~옹. 장모는 처형과 처제네 강아지를 자주 봐왔다. 내가 속으로 투덜댔다. '그래도 그렇지. 장모님, 내 눈에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처제가 그의 강아지 사진을 보내왔다. 화려하지만, 성형수술한 얼굴처럼 보였다. 자연미 넘치는 생얼도 예쁜 우리 강아지가 더 낫다. 미미를 보는 눈도 한국과 미국이 다를 것이라 내가 강변強辯한다. 우리 강아지 이름은 송이다. 작은 아이가 작명作名했다. 이름도 착하지 아니한가. 우리 부부는 고슴도치 되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10절)

1. 10여년 전에도 자식자랑을 보스톤코리아에 늘어놓은 적이 있다. 그때에도 아내에게 주책부린다고 바가지 긁혔다.
2. 주치의를 정해야 했다. 수의사인 우리교회 김문소 장로님께 연락했다. 은퇴하셨지만,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다. 그나마 지문은 계속해 주시기로 약속 받았다.
3. 아내는 내가 고른 사진을 실지 말라 경고했다. 독자들아, 아내에게 전화 하시라. 사진이 너무 잘 나왔다고 칭찬 해주시라. 내게는 전화하지 말라.

오늘은 사사로운 일을 적기로 했다. 아내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제발 그런건 쓰지 말라. 그래도 못들은 척한다. 자식자랑 늘어 놓는 건 큰 흠이 아니라 우긴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 했던가. 고슴도치를 직접 본적이 있는지 기억은 가물거린다. 하지만 분명 매력있는 모습은 아니다. 그러니 새끼라 해도 그닥 귀엽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내눈으로 볼때 그렇다는 말이다.

서로 가슴을 주어라. 그러나 소유하려고는 하지 말라.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때문에 고통이 생기나니 (이정하, 고슴도치 사랑 중에서)

내 작은 아이가 갖난 어릴적이다. 아내의 친구 부부가 방문하기로 했다. 늦둥이를 자랑할겸, 무거운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리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소피아 선생님의 지난 칼럼은 mywiseprep.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7 AP US History 준비 가이드 특집 (1) Period 9: 1980~현재까지

개정 AP 미국사의 핵심은 내용의 단순 암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을 만드는 굵직굵직한 큰 그림과 각 시대를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주요 개념 (Key Concept)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칼럼은 통해 올해 AP 미국사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하는 주요 개념들을 정리하기 위한 <2017 AP US History 준비 가이드> 시리즈로 8주간 연재합니다.

1980년, 그 이후

개정판 AP 미국사에서는 종전의 AP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현대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져 보인다. 학교 수업에서 채 다루지 못하거나 소홀히 하기 쉬운 시대이지만 1980년대 이후 역시 한 번쯤은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194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말까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냉전 Cold War>였다면, 최근 3-40년간의 역사는 공산주의-자본주의의 대립과는 다른 종류의 이데올로기 충돌들이 보여졌던 시대다. 또한 동시에 세대간, 지역간, 사회 계층과 그룹간의 '문화 전쟁'의 시대였다.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 외교의 핵심이었던 '공산주의 확산 저지'는 냉전의 종식과 함께 사라졌으나, 미국의 대외 정책은 다른 의미에서 여전히 미국에 의한 전세계 질서와 힘의 균형을 지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과학 기술의 혁명적인 발전 역시 가장 최근의 미국사를 특

징 짓는 핵심적인 현상이라고 하겠다.

키워드 하나: 보수주의

• Neoliberalism, Neo-conservatism, Small Government, Tax Cut, Moral Majority

1980년대 이후가 출제될 경우라면, 보수의 재등장에 대한 주제가 등장할 확률이 가장 높다. 1980년 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된 레이건은 이듬해 그의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현재의 위기에 있어, 정부는 이 문제들에 대한 해법이 되지 못한다; 정부가 바로 문제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이래로 "정부"란 엄청난 규모의 자본을 운용하고 인력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 비즈니스로 자리잡았었다. 그러나 1970년대의 석유파동과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외교 문제에서의 패착, 그리고 닉슨의 워터게이트 등으로 인해 '정부'는 무능함, 비효율의 상징이 되었고, 신뢰보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레이건은 70년대에 불거진 각종 문제의 원인을 "비대한 정부"라고 돌려 비판을 하면서 정부의 '탈규제'를 옹호했다. 작은 정부를 옹호한 레이건 행정부는 부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을 시행했다. 레이건 재임기가 미국의 신자유주의화와 맞물리는 것은 우연이 아닌 셈이다.

이와 동시에 대중들 사이에서는 미국사회의 '문화적, 도덕적으로 쇠락'에 대한 우려가 보수주의의 물결로 이어졌다. 이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등장했던 각종 사회운동과 '리버럴' 한 변화에 대한 보수층의 결집이었는데, 복음주의-근본주의의 기독교를 중심으로 등장한 "도덕적 다수" 운동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새로운 보수주의의 흐름에서 두드러진 경향은 페미니즘, 이혼률 증가, 성적 소수자의 권리 향상, 그리고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위헌이라 판결한 *Engels v. Vitale* (1962), 여성의 임신 중절에서의 선택권과 프라이버시권의 손을 들어준 *Roe v. Wade* (1973)를 겨냥하여 "가족"의 중요성이라는 프레임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또한 1980년 무렵 등장한 새로운 보수주의자들은 문화 혹은 도덕의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개입'할 것을 주문하였다.

키워드 둘: 포스트-냉전

• Defense spending, Roll-back, Détente, Iran-Contra Scandal, the End of Cold War, Pax Americana, Gulf War, 9.11 Terror, War on Terrorism

냉전 말기 미국이 당면했던 도전은 대외정책과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문제였다. 닉슨 대통령 (재임: 1969~1974) 당시의 데탕트 (긴장 완화) 정책과 함께 다소 개선되는 듯하던 양극 체제는, 레이건 행정부초기에 접어들며 강력한 반공주의와 개입주의 노선으로 회귀했다. 가령 남미의 니카라과에서 공산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역쿠데타를 지원하다 문제가 되었던 이란-콘트라 스캔들은 레이건의 반공 정

책인 "롤 백"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작은 정부론에도 불구하고) 군비 지출이 증가했다. 하지만 레이건 정부 말기에 들어 소련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등이 개혁 개방 노선을 취하면서 화해의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냉전의 종식만으로 미국의 개입주의/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에 의한 질서)로 설명되는 미국 패권주의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특히 걸프 전쟁 이후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의 패권을 공고히 했다. 공산주의에서 아랍으로 "악마"가 바뀌었을 뿐, 어떤 의미에서는 신 냉전의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걸프전 10년 후 2001년에는 전세계를 경악시킨 9.11 테러가 발생했는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미국이 벌인 '테러와의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후 국가의 '안보'와 시민의 자유에 대한, 혹은 테러방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키워드 셋: 경제

최근 3-40년 간의 미국 경제의 특징은 물론 전세계 경제와의 긴밀한 연관과 초국적 금융 자본의 성장이다. 또한 미국의 생산직 일자리와 노조원수, 실직 임금의 하락 등과 함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이 상황에서 자유 무역을 확대할 것인지, 혹은 복지를 어떻게 증대 해야 하는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69 화랑세기(花郎世紀), 5세 풍월주(風月主) 사다함(斯多含)(21)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이어지는 김대문의 화랑세기(이종욱 대역), [찬하여 말한다: 비랑(比梁)이 물려준 정기(精氣)이고 위화의 손이라. 적을 친 공이 높은데 스스로 불모지에 머물렀다, 청조가 산중에 있고 송백(松柏)이 길이 푸르도다.]

비랑은 사다함의 할아버지이다. 벽화(195)와 뒷간에서 사통하여 사다함의 아버지인 구리지를 낳았다. 위화는 초대 풍월주 위화랑을 말함이다. 사다함의 어머니 금진이 위화랑의 딸이다. 사다함이 562년 가야정벌에 참전하여 세운 혁혁한 무공의 상으로 왕이 하사한 전답을 모두 부하 낭도들에게 나누어 줬으며, 청조가 산중에 있음은 가야정벌에서 돌아와 보니 사랑했던 연인 미실이 세종의 부인이 된것을 보고 지어바친 노래 '청조가'를 뜻함이다.

계속되는 화랑세기, [세계: 아버지는 구리지 九利知이고 할아버지는 비랑(比梁)이고 증조는 비지(比知)이고 고조는 비태(比太)이다. ... 미해 공(美海公)의 딸이다. 처음에 내물왕... 후궁으로 산황(山凰)을 낳았다. 실성왕이 명하여 내물... 왕이 서자, 후궁으로 들이고, 이어 사랑하는 아우에게 내려주었다. 실(實)... 미해공... 혹은 말하기를 심황(心凰)은 실상공(實相公)의 딸이라고 한다. 놀지왕이 이에 심황을 명

하여 내물신궁(奈勿神宮)의 주주로 삼았다. 비지공은 이로써 ... 내물... 손이다. 묘량부인을 아내로 맞아 비랑공을 낳았다. 묘량... 왕녀이다. 또한 대원신통에서 나왔다.]

삼국사기(사다함열전)에 보면 사다함은 내물왕의 7세손으로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는 선대들의 이름이 없다. 화랑세기에는 고조할아버지 비태까지 나온다. 두 사서를 종합해보면 사다함의 세계가 나온다. 먼저 내물왕은 놀지, 복호, 미사흔 등의 세 아들을 두었는데, 놀지는 제19대 놀지왕이고 복호는 고구려에 미사흔은 왜국에 볼모로 잡혀가 있었는데 놀지왕의 명으로 박제상이 가서 왕의 두 아우들을 구해왔다. 하지만 박제상은 왜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계림의 개돼지가 될지언정 왜의 신하는 되지않겠다"라는 충절의 변을 토하고 화형당했다. 이에 놀지왕이 그의 충절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박제상의 딸 청아와 동생 미사흔을 결혼시켰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구천(仇天)이 바로 사다함의 고조인 비태의 아버지이다. 즉 사다함의 세계는 내물왕에서 미사흔, 구천, 비태, 비지, 비랑, 아버지 구리지로 이어졌다.

위의 필사본에서는 결락이 많아서 비태의 부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심황이 딸 심황을 낳았음이 나온다. 증조할아버지 비지의 부인은 묘량이었고, 할아버지 비랑의 부

인은 벽화이다. 비랑은 신라의 마복칠성 중의 한 명이다. 마복칠성성의 우두머리는 김원중(법흥왕의 휘)인데, 당시 신라의 풍습으로 임신한 후 왕의 승을 입고 태어난 아들을 마복자라고 하였다(왕이 아닌 직위의 상관과 관계 후 태어난 아들도 마복자라고 불렀다). 김원중이 이끄는 마복자들, 이른바 '마복칠성'은 왕자에 버금가는 전군의 지위를 누렸다.

신라의 김씨 왕조는 제17대 내물왕(356~402년 재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전에는 제13대 미추왕만이 김씨였고, 박씨와 석씨가 다스렸다. 그리고 하대의 제53대 신덕왕, 제54대 경명왕, 제55대 경애왕의 박씨왕이 있었다. 이 무렵 이미 신라는 망국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미추왕이 등극하면서 김씨왕조가 시작되었지만 미추왕은 아들이 없었다. 딸만 있었는데 사위들이 왕위를 이을 수는 있었지만, 복잡한 정쟁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제14대는 다시 석씨들에게로 갔다. 14대 유례왕은 제11대 조분왕의 아들이고, 제15대 기림왕(이찬 결속의 아들)은 조분왕의 손자이다. 그리고 제16대 흘해왕은 제10대 내해왕의 손자이며, 각각 석우로(1%)의 아들이다. 그 다음 제17대가 김씨인 내물왕이다. 내물왕은 미추왕의 부마(사위)이며 미추왕의 동생인 김말구의 아들이다. 다음 왕은 실성왕으로 역시 미추왕의 부마이다.

이렇게 신라의 하대까지 김씨왕조가 이어졌다.

195) 벽화는 당대 신라의 으뜸가는 미인이었다. 날이군(현 경북 영주) 파로의 딸이었는데 소지왕이 순시를 갔다가 그녀의 미모에 반해서 변복을 하고 경주에서 몇차례 찾아가곤 하다가 궁으로 데려와서 후궁으로 삼았다(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22년).

196) 석우로는 첨해왕 3년(249년) 왜국의 사신을 접대하는 과정에서 "조만간 너희 왕을 소금 만드는 노예로 만들고, 왕비는 밥 짓는 여자로 삼겠다"고 희롱했다가 왜왕이 그 말을 듣고 노하여 신라를 정벌하려니까 우로가 감당하겠다고 나갔다가 잡혀서 팔감나무 위에서 화형을 당했다. 그 후 우로의 부인은 죽은 남편의 원수 갚을 날만을 기다리다가 미추왕(재위 262~284년) 때 식량을 요청하러 온 왜국 사신을 접대하겠다고 왕의 허락을 받고 집으로 데려와 만취하게한 뒤 마당에 나무단을 쌓아놓고 불태워 죽였다(삼국사기 권45 열전5 석우로)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찰리 박 올브라이트

Charlie Albright

피아노 독주회

프로그램

Chopin
Ballade


Kapustin
Variations, Op.41

Albright
Improvisation

Schulz-Evler
Concert Arabesques on Themes
from "On the Beautiful Blue Danube"

Chopin
Etudes, Op.25

2017년 3월 26일(일) 오후 4시
Pickman Concert Hall at Longy School of Music
27 Garden St. Cambridge, MA

주최: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일반 \$25 / 학생 \$10 티켓 및 상세 정보: (781) 223-4411 또는 www.kcsboston.org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人

恩 (은)

죄(罪)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恩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永生)이니라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로마서 6:23.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10일로 확정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8일 평의(評議)에서 결정했다. 작년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시킨 후 20여 재판을 거친 후 탄핵 심판의 마감에 이른 것.

이 소식에 ‘촛불과 태극기’ 두 진영은 헌재(憲裁)부근에서 대규모 찬반집회를 갖겠다고.

태극기 진영은 총동원령을 내렸다.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연속집회를 열겠다고. 촛불측도 9일엔 광화문, 선고 당일인 10일엔 헌재 앞 집회를 예고했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4%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판결이 나면 불복을 답변했고, 촛불쪽은 “기각 땀 혁명”, 태극기 쪽은 “아스팔트 위에 피”란다. 박사모 회장은 온라인 카페 게시판에 “살 만큼 살았다”는 글까지 올려 위협한다고.

헌재가 선고일정을 잡았다는 것은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론을 내렸다는 뜻. 이를 뒤집을 수 없다는 뜻인데 따라서 지금부터의 시위는 헌재결정을 불복, 법치를 무너뜨려 무정부 상태로 끌고 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정부는 여러달째 반신불수 상태이다. 국민이 단합하려면 헌재 선고가 국민 분열을 가중시킬게 아니라 치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 열쇠다. 박근혜 대통령, 여야 대선 주자 모두가 헌재 선고에 복종하는 것이 열쇠다.

재판부는 심리절차와 선고 내용에 대한 헌법 또는 법률적 근거를 논리로 제시해 논란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헌재 선고는 최종적(最終的), 불가역적(不可逆的) 결론이어서다. 사람마다 자중하고 또

한 자제해야 한다. 그만큼 중대한 시점이어서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중진 의원들은 9일 오찬 회동에서 헌법재판소의 10일 탄핵선고와 관련해 “결과에 승복하고 이후 혼란을 수습하는데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정 의장은 기자들과 같이한 자리에서 “모두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고 또한 통합된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는데 합의했다”고

정 의장은 “헌재 선고가 되고 나면 있을 수 있는 각종 집회에서의 참여는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전 시위보다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협력하는 노력에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에는 문희상, 박병석, 이종걸, 원혜영, 박연선의원(이하 더불어 민주당), 심재철, 나경원(이하 자유한국당), 박주선, 조배숙(이하 국민당), 김무성(바른정당)의원 등 여야 각 정당의 4~5선 이상 중진들이 같이 자리했다.

국민이 합심해도 쉽지 않은 위기들이 몰려 오는데 정부는 여러 달째 반신불수다.

국민이 단합하려면 헌재 선고가 국민 분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헌재 결정에 모두 승복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여야 대선주자 모두가 결과에 관계없이 헌재 결정에 승복을 천명해야 하는데.

두고 볼 수밖에 길은 없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위원장이 삼성과 LG를 찍어 “무역 부정행위를 한다”고 비난했다. 삼성과 LG가 관세회피를 위해 중국에서 베트남과 태국으로

생산지를 옮겼는데 이 같은 무역 부정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주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연례보고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늘렸으며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의 통상인식이 왜곡되거나 사실과 다른 것이 적지 않다.

최적의 생산지를 찾아다니는 것은 삼성, LG 뿐 아니라 미국 등 글로벌 기업의 유행성 전략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중국, 일본 등이 불공정 무역으로 대미흑자를 낸다는 전제위에 통상정책을 짜고 있다는 것.

따라서 미국의 통상압박이 본격화되기 전에 한국이 선제적으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일본은 “일자리 70만개, 4,500억 달러 투자 보따리를 트럼프에게 안겨줬으니…….”

은은 : 惠也 해아 - 은혜 은. 은을 풀면 ① 因 : 由也 - 말아암을 인. 무슨 일이나 사건은 반드시 ‘생겨난 까닭’이 있게 마련이니가. 因자는 口 : 나라 국 안에 大 : 큰 대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 “큰 대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외아들 인자(人子) 예수님을 그리고 있다.

“내 (예수 그리스도)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신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감을 기뻐 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 “You heard Me (Christ) say, ‘I am going away and I am coming back to you.’ If you loved Me, you would be glad that I am going to the Father, for the Father is greater than I.” - 요한복음 14:28.

예수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크다”는 증언이 “하나님 부자(父子)보다 더 큰(大)것이 없다”는 증언이다.

해서 대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시존

재를 말하는데 ‘하나님(-)과 인자(人子) 예수님의 합성어 = 大子로 표현된다. 두 분이 온우주의 통치 大子 곧 父子를 대표하고 여기에 두 父子분의 대리인이 성령(聖靈)님으로 성삼위(聖三位)께서 천지간 우주를 통치하신다.

해서 기독교인들이 성삼위의 식구(食口)가 되기 위해서는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Baptism)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 은자가 ‘마음심(心)에 얹힌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나라 因에 접근하여 은의 식구가 되기 위해선 人子(인자 예수님)의 마음(心)을 성령님이 대신하여 받쳐 주신다는 뜻.

그러므로 은을 인식하고 안다 또는 체험한다는 뜻은 “하나님(-)과 예수님(人)식구로 성령님(心)이 하늘나라 식구(食口)임을 인정 받는다”는 뜻.

크리스천(Christians)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The Lord’s Prayer)”를 드릴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罪)지은 자를 사(赦)하여 주옵시고…….” 크리스천의 인간관계는 먼저 상대방에게 ‘내 잘못’을 사죄 받는 것이 전제(前提)조건이 돼 있다. 상대방의 잘못을 내가 먼저 캐기 전에 ‘내 잘못’을 먼저 밝혀야 “그리스도(Christ) 식구”로서 자격을 갖춘다.

바로 이 관계를 명백히 하고 크리스천의 자격을 갖추라고 은이 등장한 것.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마태복음 11:29.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은을 모를 뿐 아니라 예수님의평안을 멀리할 뿐이다!

HANKOOK AUTOBODY INC. 978.664.2321

한국말 문의 전화 가능!



- 무료 견적서
- Auto body 사고 수리 및 페인트
- Insurance 수리 및 Deductible 세이브
- 프레임 스트레이너 머신 및 베인투스 완비

126 Main St North Reading

한국 오토바디샵

11월 14일

GRAND OPEN




영업 시간

M-F: 8:00~5:00

SAT: 8:00~12:00

-경백-

- * 현대 자동차 서비스 공제 사업(대량용 남부 사업소 판공 도장부 근무)
- * Herb chamber 브레이크 트럭 콜라본 센터 근무(M-benz, Bmw, Mini, Lexus, Ford)
- * Bernadi Boston body shop 근무 (Honda, Acura, Auk, Toyota)
- * Tansky Toyota 근무 (모든 Toyota 차량)
- * Calvin's auto body 운영
- 20년 Auto body work!

126 Main St. Unit 10, North Reading MA 01864

Tel: 978.664.2321, Fax: 978.664.2314
E-mail: autobody.hk@gamil.com

2017 신년 봄맞이 강원 웰니스 식품 보스톤 특판전

Korea(Hoengseong) Food Sales Festival



강원도 횡성군에서 동포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12개 업체에서, 130여 품목을 준비 했습니다.



2017년 3월 23일(목) ~ 3월 26일(일)

- 장소 : 155 Parker St, Lawrence, MA 01843
- 주관 : 미동북부 강원도민회 ▪ 연락처 : 732.513.4369
- 주최 : (사)횡성군 가공식품수출협의회

[횡성군 협력 업체]

앤초이스, 예향식품, 서원농협, 청아굿푸드, 산골농장, 면나라,
산내마을, 옥두식품, 밀원, 청태산농장, 참살이, 산들누리

동포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윤희경
보스톤봉사회

마침내 공화당 건강보험 법안이 나왔다

지난 7년간 오바마케어를 "재앙(Disaster)"라고 혹평하며 폐기를 주장하던 공화당이 자체의 법안을 발표하였다. 공화당은 "저렴하고, 보험선택 종류가 많고, 건강관리를 정부가 아닌 자신이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민에게 직접 관련되는 부분만을 주로 살펴보자.

1.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은 의무이고, 없으면 벌금을 내는 조항"이 없다. 대신 건강보험을 2달 이상 갖고 있지 않다가 다시 들면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30%를 추가로 1년간 부과할 수 있다.

2. 오바마케어로 인하여 현재 "매스헬스케어 플러스"인 경우(타주는 Medicaid Expansion이라고 한다) 2018-2019 혜택에는 변동이 없다. 그러나 2020년 1월 부터는 혜택이 약간 줄어든다. 여타의 오바마케어를 갖고 있으면 2018-2019년은 오바마케어와 유사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2020년 1월 1일 부터는 새법에 의한 택스 크레딧을 받아 건강보험비용에만 쓰도록 하였다(낙태수술은 제외). 택스 크레딧은 캐쉬보조금과 같다. 아래표는 오바마케어와 공화당 안의 택스 크레딧을 비교한 것이다.

표에서 두 보험의 차이가 명확하다. 오바마케어는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액이 많아진다. 중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공화당 안보다 훨씬 많다. 상기 크레딧 이외

소득(2020년도 싱글의 극빈자 소득액은 \$12,500)		오바마케어가 년 택스 크레딧	공화당 하원 안 년 택스 크레딧
소득액 \$20,000 (극빈자소득액의 160%)	27세	\$3,225	\$2,000
	40세	\$4,143	\$3,000
	60세	\$9,875	\$4,000
소득액 \$40,000 (극빈자 소득액의 320%)	27세	\$103	\$2,000
	40세	\$1,021	\$3,000
	60세	\$6,752	\$4,000
소득액 \$75,000 (극빈자 소득액의 6배)	27세	\$0	\$2,000
	40세	\$0	\$3,000
	60세	\$0	\$4,000
소득액 \$100,000 (극빈자소득액의 8배)	27세	\$0	\$0
	40세	\$0	\$500
	60세	\$0	\$1,500

에 저소득층에게는 별도의료비 보조가 있다. 반면 공화당안은 나이만으로 지원액이 결정된다. 택스 크레딧 이외의 지원은 일절 없다. 소득이 싱글인 경우 \$75,000, 가족인 경우 \$150,000까지는 모두 같은 지원액을 받는다. 그러나 소득이 이보다 높으면 크레딧이 점차로 줄어 싱글은 \$95,000(29세) 혹은 \$115,000(60세 이상)이 되면 크레딧이 없어진다. 60세 이상 가족의 경우 \$230,000 이상이면 크레딧을 못 받는다. 한편 60세 이상에게는 보험회사가 29세까지의 보험료의 5배(오바마케어는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큰 타격은 저소득층과 노년층이 받게 될 것이다.

3. "헬스세이빙스계정" 적립한도액수를

\$6,550(싱글)/\$13,100(가족)으로 올렸다. 이 계정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샐러리맨 혹은 자영업자는 2017년말에 다음해 즉, 2018년의 건강보험경비 예상액을 정하고 2018년부터 자신의 "헬스세이빙스계정"에 세금을 내지 않고 주기적으로 적립한다. 2018년에 생기는 여러 의료비를 이 계정에서 지출한다. 장점은 적립금은 세금을 안내고 적립하였기에, 의료비는 세금을 안낸 돈으로 내게 된다는 점이다. 계정에 적립할 재정적 여유가 별로인 중저소득자는 혜택이 적다. 고소득층은 장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4. 오바마케어에 중 선호조항인 "지병이 있는 경우 차별금지"와 "26세까지 부모의 보험에 가입"은 계속된다.

5. 2020년부터 매스헬스(메디케어)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 방법도 바뀌고 따라서 액수가 줄게 된다. 따라서 주 정부는 가입자격을 높여 가입자를 줄일 수밖에 없게된다. 만약 MA주 정부가 별도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매스헬스 가입문이 훨씬 좁아 질 것이다. 메디케어 지원방법 변경으로 수많은 저소득, 디스에이블, 노약자에게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많고, 의료비를 저렴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부정적이어서 많은 시민이 보험을 잃을 것으로 평하고 있다. 공화당은 상하원과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어 4월 중 심의를 마치고 초고속으로 입법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화당 극우보수 상원의원들은 정부지원이 많아 오바마케어와 유사하다고 하여, "오바마케어 2.0" 혹은 "오바마케어 Lite" 라고 칭하며 심한 반대를 하고 있다. 이들이 이 원안의 통과를 저지할 수도 있다. 한편 중도 공화당의원과 여러 주지사들은 보험을 갖지 못할 시민이 많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가입자가 감소될 것을 우려하여 미의사협회와 미병원협회도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오바마케어의 재원이던 고소득층에 대한 여러 세금을 함께 폐기한다. 폐기되는 세금총액은 앞으로 10년간 3,500억불로 추산되고 있다. 이 액수가 고소득층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은 중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금을 빼서 고소득층의 배를 불린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편 오바마케어는 노력하여 번 돈에 세금을 부과하여 저소득층에게 재분배한다고 공화당은 반박하고 있다. 같은 나이에 같은 병에 걸린 두 사람이 보험유무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현실적이고 이념적인 상황에 대한 답을 놓고 미국은 허둥지둥하고 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76)

투자 귀재의 선택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워런 버핏이 2008년 1월 투자 내기를 걸었습니다. 상금은 100만 불입니다. 상대는 뉴욕에 있는 투자회사 프로티지(Protégé Partners)라는 헤지펀드 투자 회사입니다. 내기(Betting)한 것은 "10년 동안 투자해서 누가 수익률이 더 높을 것인가?" 입니다. 내기를 시작한 지 9년이 되었고 올해 (2017) 말에 승부가 결정됩니다.

워런 버핏은 투자 종목 단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벵가드(Vanguard) 500 인덱스 펀드입니다. 인덱스 펀드는 주식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가 없습니다. 벵가드 500 인덱스 펀드는 주식 규모로 큰 500개 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00개 회사는 애플, 알파벳(구글), 마이크로 소프트, 엑산 모빌, 존슨 & 존슨, 제너럴 일렉트릭(GE), 순위로 이루어집니다.

프로티지 회사는 현재 운용 중인 헤지펀드(Hedge Funds) 5곳을 선정했습니다. 프로티지 회사는 헤지펀드를 선정할 때 당연히 이름있고 경험 많은 주식 전문가, 혹은 주식 도사(?) 같은 사람이 운용하는 헤지펀드를 선정했을 것입니다. 헤지펀드는 큰 부자

들만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종목입니다. 운용하는 투자금은 최소 빌리온(Billion) 단위입니다. 풍부한 자금력과 함께 펀드매니저는 회사 주식 선정을 도와주는 주식분석가(Stock Analyst)와 함께 유망한 주식을 선정해서 투자합니다. 헤지펀드 5곳의 이름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언급하면 벵가드 500 인덱스 펀드에는 펀드매니저가 없습니다. 주식시장 변동을 예상하여 사고팔지도 않습니다. 인덱스 펀드와 비교하면 5개의 헤지펀드는 펀드매니저와 주식분석가의 도움으로 유망한 회사를 선정하여 투자합니다. 주식시장의 하락을 예상하면 미리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 내기를 시작한 첫해인 2008년 프로티지의 헤지펀드는 23.9%만이 하락했는데 워런 버핏의 인덱스 펀드는 무려 37.0%가 폭락했습니다. 1년 지난 결과로 투자 전문가가 직접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하는 것이 투자 매니저 없이 운용되는 인덱스 펀드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성공한 결론이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은 매해 인덱스 펀드 수

익률이 프로티지 헤지펀드보다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2015년 인덱스 펀드는 1.4% 그리고 프로티지는 1.7%로 변했지만, 2016년에는 인덱스 펀드는 11.9% 프로티지는 0.9%로 인덱스 펀드가 우위를 차지합니다. 지난 9년 동안의 결과는 벵가드 인덱스 펀드는 85.4%로 상승했는데 헤지펀드는 단 22.0% 수익률입니다. 차이가 무려 63.4%입니다. (Buffett's Bet with Hedge Funds: Year Nine, Investopedia, February, 28, 2017)

헤지펀드가 인덱스 펀드를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몇 회사에 집중투자해야 하고 선택한 몇 개의 회사는 '주식 대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금융위기 때처럼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헤지펀드는 미리 알고 주식시장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여 대박 나는 곳에 투자해야 합니다. 지난 9년을 돌이켜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헤지펀드의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는 투자 경비 때문이라고 워런 버핏이 말

합니다. 지난 10년간 일반 투자자가 투자를 도와주는 금융회사에 지급한 돈이 무려 \$100 Billion이라고 말합니다. (Buffett Assails Money-Manager Fees as Berkshire Reports Profit Rise, WSJ, February, 27, 2017) *\$1 Billion은 \$1,000 Million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투자해서 얼마간의 수익을 만들면 만족해합니다. 이것은 경제상식의 기본인 기회 경비(Opportunity Cost)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8년간 주식시장의 실제 수익률(S&P 500 Index)을 계산하면 50만 불이 150만 불로 불어나야 합니다. 일반 투자자는 같은 기간 80만 불만 증가해도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제대로 투자했다면 80만 불이 아니라 150만 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5년간 일반투자자는 인덱스 펀드를 이용해서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저렴한 투자경비와 높은 수익률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재정설계사가 나의 소중한 돈을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 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617-455-8073
mwlee@kicpa.or.kr 또는 tomwlee1125@gmail.com

2016년 세금신고 안내
개인소득세 신고(Individual Income Tax Return)(5)
- 자녀(Child)관련 세제혜택

이번주는 자녀와 관련된 각종 세제혜택에 대해 살펴봅니다.

자녀가 있는 납세자는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Dependent Exemption)를 비롯하여 아래와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세대주(Head of Household)신고
- ▶ 부양가족공제(dependent exemption)
- ▶ 의료비공제 (Medical and Dental Expenses)
- ▶ 근로소득세액공제 (Earned Income Credit)
- ▶ 자녀등의 부양비 세액공제(Credit for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 ▶ 교육비 (Qualified Education Expenses)관련 각종 세제혜택

세대주(Head of Household)신고

세금신고유형(Filing Status)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납부할 세금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독신자(Single)로 신고하면 높은 세율과 각종 제약으로 인해 세대주(Head of Household)로 신고하는 것보다 세금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세대주로 신고하는 것이 독신자로 신고하는 것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세대주로 신고하려면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는데, 부양가족대상인 자녀가 있다면 결혼한 상태가 아니어도(Unmarried) 세대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공제(dependent exemption)

자녀가 '요건을 갖춘 자녀(qualifying child)' 나 '요건을 갖춘 친척 등(qualifying relative)'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시 자녀 1인당 \$4,050을 소득에서 차감해줍니다.

의료비공제(Medical and Dental Expenses)

의료비 지출액은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 대상입니다. 의료비 지출액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양가족에 해당하면 그 자녀를 위한 의료비 지출액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Earned Income Credit)

근로소득(Earned Income)이 있는 납세자 중 조정후 소득금액(Adjusted Gross Income)이 일정금액 미만인 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AGI의 기준금액은 요건을 갖춘 자녀(Qualifying Child)가 몇 명이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자녀수	AGI
0명	\$14,990 (부부합산자 \$20,430)
1명	\$39,296 (부부합산자 \$44,846)
2명	\$44,648 (부부합산자 \$50,198)
3명 이상	\$47,955 (부부합산자 \$53,505)

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일정요건을 갖춘 17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 1인당 \$1,000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데 이를 자녀세액공제 (Child Tax Credit)라 합니다. 그런데 납부할 세금이 자녀세액공제액보다 적어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그 미공제 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이를 자녀세액추가공제(Additional Child Tax Credit)라 합니다.

예를들어, 17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경우 \$2,000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할 세금이 \$1,300이라면, 세금이 공제받을 금액보다 작아 \$700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 미공제된 \$700을 자녀세액추가공제라 하여 환급해 줍니다.

그러나 소득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자는 삭감규정(Phase-Out)에 의해 자녀세액공제나 자녀세액추가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등의 부양비 세액공제(Credit for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1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맞벌이부부가 자녀의 부양비를 지출한 경우 일정액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데 이를 자녀등의 부양비 세액공제라 합니다.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로서 부부 둘 다 근로소득(Earned Income)이 있어야 합니다(부부 중 한명이 학생인 경우 등은 예외).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양비 지출액(대상자가 1명이면 \$3,000, 2명 이상이면 \$6,000

한도)의 최대 35%(소득에 따라 20% ~ 35%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교육비(Qualified Education Expenses) 관련 각종 세제혜택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에

- 1)학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 등에 대한 혜택,
- 2)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비용공제(Deduction),
- 3)교육비에 대한 비용공제 (Deduction) 및
- 4)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Tax Credit) 등이 있습니다.

위의 교육비 관련 혜택은 동일인이 여러 개를 동시에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한편 위 혜택들은 반드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고소득자의 경우 삭감규정(Phase-Out) 때문에 혜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위 4)교육비 관련세액공제에는 'American Opportunity Credit' 과 'Lifetime Learning Credit' 이 있는데, 이 중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의 경우 납부할 세금이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보다 작아 다 공제받지 못한 경우 미공제액 중 최대 \$1,000을 환급해 줍니다.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임대, 상속, 증여 결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감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tomwlee1125@gmail.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성기주 변호사 칼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i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 소식 (2017년 3월 둘째주)

● 가족초청 이민 신청서 (Form I-130)

작년 12월23일 이민국은 대대적인 이민관련 신청서들에 대한 개정을 실시했고 여기에는 가족초청 이민 신청서인 Form I-130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27일 이민국은 가족초청 이민 신청서, Form I-130에 대한 개정을 다시 한번 실시했습니다. 기존의 2장짜리 신청서가 12장으로 대폭적으로 개정됐습니다.

현재는 작년 12월 개정된 신청서와 이번에 개정된 신청서 모두 다 사용하실 수 있지만 오는 4월28일부터는 이번에 개정된 신청서만 쓰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배우자를 위한 가족초청인 경우 작년 12월 개정된 신청서를 쓰실 경우가 가족초청서와 G-325A 를 부부 각각 작성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이번 개정된 신청서를 쓰실 경우에는 Form I-130A 라는 신청도 추가로 작성해서 보내셔야 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H-1B Update

이민국은 지난주 올해 4월1일 (실제로는 4월3일) 부터 시작되는 일반 H-1b 신청에서의 급행신청 (Premium Processing) 을 일시적으로 정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H-1b 에 대한 급행신청은 차후 별도의 발표를 통해 재개됩니다. 급행신청은 추가 신청료 (\$1,225) 를

내면 신청 후 15일 이내에 신청서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이며 만약 15일 안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추가신청료는 환불됩니다.

작년 포함 지난 수년간 4월달에만 십여만개의 H-1b 신청서가 접수됐고 급행으로 신청해도 빠르면 5월말 또는 6월이 되야 신청서에 대한 승인여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추첨에서도 급행 신청서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았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

따라서, 이번 이민국의 결정이 오히려 신청자들에게는 더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H 신청준비로 많은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은데, 적어도 급행신청을 해야 할 지 말아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은 안해도 되겠네요. 어차피 급행으로 신청해도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급행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작년까지는 단지 급행신청서에 대한 추첨 확률이 높다는 소문 때문에 추첨 확률을 높이려 추가로 돈을 지불할지 말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셨습니다.

준비과정에 이미 급행신청을 준비하시고 회사나 변호사에게 급행 신청료를 지불하신 분들은 급행 신청료를 다시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 H-1B 뿐만 아니라 차후 별도의 발표가 있을 때까지 다른 (Cap 에 해당되지 않는) H-1B 신청서에 대한 급행신청도 일시 중지한다고 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밀입국한 불법체류자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다?!

시민권자가 누리는 혜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시민권자는 직계가족, 즉 배우자, 자녀, 그리고 부모에게 어느 누구보다도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계가족이 밀입국을 한 경우에도 "재입국금지기간면제안 (Unlawful Presence Waivers)" 이라는 절차를 통해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에 대해 사면을 받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면제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밀입국한 가족이 시민권자와 떨어져 살게 되면 시민권자가 "극심한 어려움" 을 겪을 것이라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극심한 어려움" 이란 이별로 인한 그리움보다는 극단적인 상태의 어려움으로 이민국은 재정적,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영주권자도 시민권자와 동일한 비율로 미국에 세금을 내는데 왜 영주권자는 그러한 혜택이 없는지 따져 물으시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유에서였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트럼프 행

정부로 넘어가기 직전 시민권자 직계가족에게만 한정 되어 있던 "재입국금지기간면제안" 을 영주권자에게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덕분에 2016년 8월 29일부로 영주권자의 직계가족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확대안의 적용 범위는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외에도 취업이민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취업이민을 포함한다" 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최근 저희 로펌에서 진행한 케이스를 생각해보겠습니다.

10년 전 밀입국 후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김 모 씨는 슈퍼마켓 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 어머니를 모시고 부인과 자녀 둘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만약 김 모씨가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자녀라면 영주권자 어머니의 가족초청으로 가족이민 청원에 승인을 받은 후 확대된 "재입국금지기간면제안" 을 통해 불법 체류 기간을 사면받고 영주권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여 아이까지 있는 김

모씨는 영주권자 가족 초청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시민권을 따시는 것도 고려해 봤지만 워낙 연세도 많으신데다가 설사 시민권을 따셔도 시민권자의 결혼한 자녀는 줄이 너무 길어 함참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리저리도 저리저리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확대안은 생각지도 못한 혜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상담을 하러 오셨던 김 모 씨는 확대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취업 이민도 혜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워낙 성실했던 김모씨는 슈퍼마켓에서 이미 취업 이민 스폰서를 서주기로 몇 차례 제안을 받았던 터였습니다. 김모씨는 취업 이민과 영주권자 가족 초청을 동시에 적용시키는 방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시민권을 딸 필요도, 하염없이 시민권자 기혼 자녀로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이 빠른 시일 내 영주권 취득하게 된 김모씨는 이번 확대안의 대표적인 수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체류 과정 중에 음주운전과 같

은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혹은 영주권에 대한 열망으로 불법이민브로커를 썼다가 기록에 남는 경우에도 이러한 사실에 대한 면제를 요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안 될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단혀 보이는 문도 다시 한 번 두드려보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문고리를 당겨보기 전에는 문이 닫혀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확대안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혹은 자신이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경험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칼럼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칼럼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SONGLAWFIRM

송동호 종합로펌 최강 이민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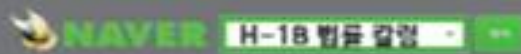
SONG LAW FIRM

ATTORNEYS & COUNSELORS AT LAW



취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확실한 트럼프 시대의 **H-1B**,
송동호 종합로펌이 함께 합니다.

전공별 H-1B 성공전략을 담은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만의 스페셜 칼럼! H-1B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H-1B 가능 전공

Computer Science / Software Engineering
 Information Systems / Technology
 Architecture / Urban Planning & Engineering

Business Administration / Marketing / Accounting
 Hospitality Business / Hotel Management
 JD / LLM / Law School

Art & Design / Fashion Design / Interior Design
 Social Sciences / Sociology / Psychology
 Physical Therapy

👛 기업 고객

국제법
 금융법
 노동 및 고용법
 보험회사 관련 소송
 부동산
 상법 및 M&A

소송
 이민법
 임대인, 임차인 관계법
 지식 재산법
 프랜차이즈법

👤 개인 고객

가정법
 노동 및 고용법
 부동산법
 사고 손해
 상법
 세금, 상속, 유언

소송
 이민법
 임대인, 임차인 관계법
 지식 재산법
 티켓, 지역 법원 관련 업무
 파산

T | 617.489.1327 MAIL@SONGLAWFIRM.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ive,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BELMONT 385 Concord Avenue, Suite 002, Belmont, MA 02478

songlawfirm1

songlawfirm LLC

songlawfirm

SONGLAWFIRM.COM

HQ | Parker Plaza, 400 Kelby St., 7th Floor, Fort Lee, NJ 07024 | T 201.461.0031 | F 201.461.0032 | mail@songlawfirm.com

CALIFORNIA | CONNECTICUT | D.C./VIRGIN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YORK | NEW JERSEY | PENNSYLVANIA | KOREA | CHINA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에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 런드로맷(Laundromat) 상점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 등 다양한 사업에
항상 리스킹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북쪽 피자/아이스크림 연매상 \$600,000 이상 단독건물
좋은 매매가격 \$160,000 변화한 지역

캠브리지 컨비니언스 연매상 \$315,000+로터리 좋은 매매가격

스프링필드 지역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40,000 단독건물, 주인 혼자 경영

보스톤 서쪽 드롭오프+셔츠유닛 연매상 \$85,000 소유자 은퇴 매매가격 \$19,000

보스톤 남쪽 동양식당 풀리커 면허증, 대학가 연매상 \$300,000 고급동네

보스톤 서쪽 아침/점심 연매상 \$30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로드아일랜드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0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보스톤 북서쪽 투자상가건물 11유닛, 연수입 \$110,000

보스톤 남쪽 컨비니언스 + 로터리, 연매상 \$900,000 + 로터리 커미션(\$70,000)

다운타운 보스톤 컨비니언스 + 델리, 연매상 \$650,000
Beer&Wine 면허증, 주방 확장 가능

체스넛힐 드롭오프, 연매상 \$200,000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뉴햄프셔 동양식당 + 풀리커, 연매상 \$3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롭오프, 연매상 \$155,000 좋은 매매가격 \$65,000

케이프코드 동양식당 연매상 \$160,000 높은 순수익

보스톤 서쪽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600,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셔츠유닛, 연매상 \$99,000 좋은 위치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88,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보스톤 서쪽 드롭스토어 2곳, 연매상 \$300,000 과 \$25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08,000 20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800,000 Beer&Wine 면허증소지, 복권, 매매가격 \$119,000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525,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교육원

아카데미 프로그램

1. Weekend Program:

SAT I, SAT II, AP수업

다년간의 경험의 강사진이 실전 문제와 새로운
문제유형에 따른 수업으로 단기간 교육경험 완성

2. Tutoring Program:

학업 과목 개인 과외 알차게 강사진 보유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등, 학생에 맞는 목적의 강사를 선정

3. Special Program:

경시대회 준비반

수학경시대회(AMC/AIME), 외국어 경시 대회,
과학 올림피아드를 위한 전문 강사진

2017-2018 고등학교 및 대학교 원서 작업 & 진학 상담

1.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컨설팅

2. 전,현직 입학 담당자와
어드바이저 선생님

프리미엄 가디언 프로그램

1.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와
믿을 수 있는 가디언

2. 아카데미 로드맵 작성으로
학생이 필요한 과목을 집중 공부

3.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및 셉터캠프 활동

Special 섬머 프로그램

1. 전문적, 체계적 2-4주 보딩 관리

2.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3. 얻을 수 있는 교수진과 다양한 수업 진행

보스톤 교육원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했습니다.

NEW OFFICE LOCATION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9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Tel. 339.234.5255~7 / Fax. 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